



코스피(5일 전주 대비)	코스닥
▲ 2209.61 (+68.94P)	▲ 751.71 (+22.4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 1136.60 (+1.5원)	▲ 1.735% (+0.045P)

세종에서 5일 일하면 5급, 하루 머물면 1급

스페셜 리포트

중앙부처 공무원 '세종 풍속도'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지 7년이 됐다. 현재 세종시에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8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곳으로 이전한다. 하지만 장·차관은 서울, 실·국장 및 과장은 길, 사무관은 세종에 머무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행정 비효율의 극치다.

▶ 관련기사 3편

"1급 공무원은 세종시에 머무는 날이 하루라 1급이고 5급 공무원은 세종시에 5일 머물러 5급"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갑'인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대다수가 세종으로 이전해 '따로 노는' 기형적인 구조 때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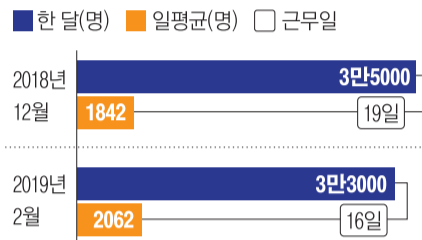
#경제부처에 근무하는 A 과장은 오랜만에 세종 사무실에 왔다. 지난 한 달간 세종에 얼마나 왔는지, 돌이켜 보니 딱 세 번 사무실 자리에 앉았던 기억이 있다. 분당이 집인 A 과장은 서울, 분당, 세종을 왔다 갔다 하는 '길과장'이 된 지 7년째다.

행정기관 대다수 이전했지만 청와대·국회 등 아직 서울에 장·차관 서울, 실·국장 '길 위' 사무관만 '세종' 비효율 극치

다. 올 초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은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조사 결과 장·차관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날이 월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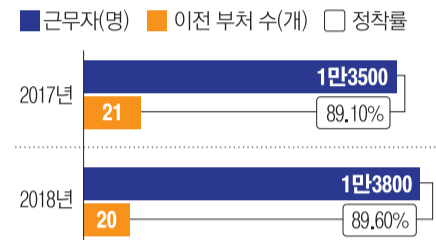
길과장은 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붙은 별칭이다. #3월 28일 코레일이 KTX 개통 15주년을 맞아 이용 구간별 하루 이용객 수를 발표했다. 서울에서 세종청사가 있는 오송까지의 이용객은 하루 5000명에 달했다.

출근시간 통근버스 이용객



군 4일 정도에 그친 걸 지적한 발언이었다. 수시로 열리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장관이 출석하면 국·과장이 수행하고, 이들이 움직이면 그 밑의 실무 직원들도 따라

세종 정착 현황



*2018년 해양경찰청 인천으로 이전 ※출처: 국무조정실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장관급 회의를 포함해 다른 중요한 회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열린다. 그러다 보니 과나 국별로 만든 카카오톡 단체방이 사실상 움직이는 사무

실이다. 외부 유출 우려에도 업무자료를 카톡으로 주고받는다.

세종에 틀어박혀 있는 5급 공무원들은 현장 접촉이 줄어들고 괴리된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경제부처에 근무하는 B 사무관은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하는데 세종에만 있다 보니 통제가 중심이 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나올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최근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고 국회 본원을 설치하지는 얘기가 나오지만, 서울~세종을 오가는 청와대 행정관과 국회 보좌관만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행정학회회는 세종시 이전으로 공무원 출장비용은 연간 1200여억 원,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은 2조8000억~4조8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7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바라본 검계 탄 아산이 푸른 바다·하늘과 대비되고 있다. 산속 살아남은 나무들은 초록 섬을 연상케 한다.

연합뉴스

강원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中企에 100억 대출 지원

임야 530ha·주택 401채 소실

강원지역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100억 원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융중대)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가 유예되고 의료비가 면제된다.

▶ 관련기사 4·5편

한국은행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산불 피해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임야와 주택은 이날까지 각각 530헥타르(ha), 401채에 달한다. 피해 임야는 여의도 면적(한강둔치 포함 4.5km)를 넘어선다. 참고 77채, 관광세터장 158동, 축산

시설 925개, 농업시설 34개, 건물 100동, 공공시설 68곳, 농업기계 241대, 차량 15대 등도 소실됐다.

한은은 금융중대 한도유보분 중 100억 원을 산불 피해 지역을 관할하는 강릉본부에 긴급 배정한다. 한은이 산불 피해로 금융대 중 한도유보분을 이용해 지원한 것은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과 고성 산불 피해 이후 14년 만이다.

한은은 금융기관 대출액의 25%를 지원한다. 금융기관 대출액 기준으로는 400억 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산불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업체다. 리조트 등 숙박업과 음식점업을 하는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한은은 필요시 추가 지원도 할 계

획이다.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가입자 가구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3개월간 감감한다. 인적·물적 피해를 동시에 입은 가구에는 6개월간 감감한다.

또 최대 6개월까지 건보료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도 1년간 납부 예외를 적용하며, 연체금 역시 6개월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특히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한 가구의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병원과 약국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한다. 인가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1000~2000원, 약국 500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한국도 미국도... '1분기 어닝쇼크'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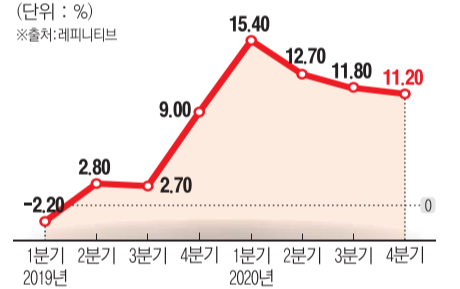
국내 반도체 등 실적전망 하향조정 美 기업 3년세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대내외 불확실성 속 비관론 커져

5일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로 1분기 어닝쇼크가 본격 시작됐다. 시장에서는 이미 전반적인 실적 부진이 예고된 데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협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불확실성 등 상존하는 리스크들로 인해 낙관론보다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전망치가 하향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분기 코스피 영업이익과 순이익 컨센서스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6%, 26.8% 감소한 40조2000억 원, 28조3000억 원으로 하향조정됐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 추정치가 46.5%, 41.1%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IT하드웨어, 건설, 유틸리티 업종 등의 실적 전망치가 뚜렷하게 하향조정되고 있

S&P500 기업 순익 전망



다"며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순이익의 증가율이 지난해 4분기 수준보다 낮아 추가 둔화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정도 밝지 않다. 미국은 12일 JP모건체이스와 웰스파고 등을 시작으로 어닝시즌에 돌입한다. 금융정보업체 레피티티브는 S&P500지수를 구성하는 기업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대로라면 2016년 2분기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서는 것이다. 어닝쇼크가 연출될 경우 올 들어 큰 폭으로 오른 주가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강현수 기자 hyeonsu95@

노르웨이 국부펀드, 63억 달러 韓 채권 판다

포트폴리오서 신흥시장 제외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포트폴리오에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 채권을 제외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재무부는 1년여의 검토 끝에 국부펀드인 정부연금글로벌의 3000억 달러(약 341조 원) 규모의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10개 신흥시장을 제외토록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칠레, 체코, 헝가리,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멕시코, 폴란드, 러시아, 태국 등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되는 한편, 일본과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뉴질

랜드, 홍콩 등의 채권은 그대로 남는다.

정부연금글로벌은 국부펀드로는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 운용자금은 1조500억 달러로, 이 중 약 30%가 채권에 투자되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세계적 흐름이 원유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투자 취약성을 줄이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르웨이 재무부는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규모를 1200억 노르웨이 크로네(약 140억 달러)로 2배로 늘려 풍력과 태양광 플랜트 등 비상장 재생가능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인정하기로 했다.

노르웨이 재무부의 이번 제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6월께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배수경 기자 sue6870@

<그룹 지주사>

LG, 평균 임금 인상률 1위... 1인당 9200만원 늘어

시총 30대 기업 임금 현황

작년 평균 9% 증가 9800만원

SK 계열사 3곳 '톱5' 명단에 올라
현대차 계열사, 전부 10위권 밖
넷마블은 오히려 2100만원 줄어

순위	회사	2017년	2018년	급여 차이	순위	회사	2017년	2018년	급여 차이	순위	회사	2017년	2018년	급여 차이
1	LG	10500	19700	9200	9	포스코	8800	9800	1000	20	삼성전자	11700	11900	200
2	SK하이닉스	8500	10700	2200	12	하나금융	11600	12300	700	20	LG생활건강	6100	6300	200
3	SK이노베이션	11100	12800	1700	12	삼성생명	9100	9800	700	23	현대차	9200	9200	0
4	SK	7100	8700	1600	12	엔씨소프트	8300	9000	700	23	한국전력	8100	8100	0
5	삼성물산	9000	10500	1500	15	삼성SDS	9200	9800	600	23	삼성SDI	8000	8000	0
6	신한지주	10500	11900	1400	15	현대모비스	8200	8800	600	26	LG화학	9000	8800	-200
7	아모레퍼시픽	5300	6500	1200	17	LG전자	7900	8300	400	27	기아차	9300	9000	-300
8	롯데케미칼	9500	10600	1100	17	KT&G	7900	8300	400	28	네이버	8200	7700	-500
9	SK텔레콤	10600	11600	1000	17	셀트리온	5500	5900	400	29	삼성바이오로직스	7100	6500	-600
9	삼성화재	9700	10700	1000	20	KB금융	12700	12900	200	30	넷마블	11400	9300	-2100

임금이 상승하기는커녕 줄어드는 기업도 있었다. 넷마블의 작년 일반 직원의 평균임금은 9300만원으로 전년(1억1400만원) 대비 2100만 원 감소했다. 이는 시총 30대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이었다. 뒤이어 감소 폭이 큰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600만 원) △네이버(-500만 원) △기아차(-300만 원) △LG화학(-200만 원) 순이었다.

이 외에도 현대차와 한국전력 그리고 삼성SDI의 지난해 일반 직원의 평균급여는 전년과 비교해 봤을 때 변동이 크게 없었다.

한편, 에프엔가이드가 상장사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서 5억 원 이상 고액보수 임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회사는 적자(당기순손익 기준) 전환됐거나 적자가 늘었음에도 10% 이상 연봉(퇴직금 제외)을 더 받은 임원이 14명(11개사)에 달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지난해 시총 30대 기업에서 일하는 일반 직원들의 임금이 전년 대비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LG의 평균 급여가 가장 크게 상승했고, 넷마블은 오히려 줄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201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시총 30위권 기업에 근무하는 일반 직원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약 9800만 원이다. 전년(약 90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약 9% 늘어난 수치다.

평균 임금 인상 폭이 가장 컸던 곳은 LG 그룹 지주사인 (주)LG였다. 작년 (주)LG 일반 직원의 평균 급여는 1억9700만 원으로, 전년(1억5000만 원)보다 9200만 원 증가했다.

2위를 차지한 SK하이닉스는 평균 2200만 원의 임금이 올랐다.

3위는 1700만 원 인상폭을 기록한 SK이노베이션에 돌아갔다. SK그룹 지주사인(주)SK(1600만 원)와 삼성물산(1500만

원)은 나란히 4, 5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톱 5' 안에 SK그룹 계열사가 3곳이나 포함됐는데, SK텔레콤(1000만 원)도 9위를 기록하면서 SK 계열사 중 무려 4곳이 10위 안에 들었다.

삼성의 경우, 삼성화재(1000만 원, 9위)를 포함해 계열사 2곳이 '톱 10'에 들었다. 다만 지난해 영업이익 58조89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삼성전자(200만 원)는 20위에 머물렀다.

국내 4대 그룹으로 분류되는 현대차는 삼성, LG, SK와 달리 다른 행보를 보였다. 시총 30위권 기업에 속한 현대차 계열사(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들 중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곳은 없었다.

삼성·SK·LG 계열사 외에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신한지주(1400만 원) △아모레퍼시픽(1200만 원) △롯데케미칼(1100만 원) △포스코(1000만 원) 등이었다.

'신한동해오픈' 왜 사과 함께 열게 됐을까

재일동포 '망향의 한' 서린 대회
日 언론 의도적으로 '동해' 제외
올해는 JGTO와 공동 주관
국제사회에 '동해' 알리는 효과

신한금융그룹이 주관하는 한국프로골프(KPGA) 메이저급 대회인 '신한동해오픈'이 올해로 35회를 맞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일본프로골프투어(JGTO)'가 공동주관사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KPGA 대회로는 최초로 일본프로골프투어 공식 대회 일정에 포함됐다. 34회 대회는 KPGA 투어와 아시안 투어가

공동주관했다. 신한금융이 일본프로골프투어가 이번 대회의 주관사로 새로이 이름을 올리게 한 데에는 남다른 배경이 숨겨져 있다. 신한금융이란 브랜드의 홍보 효과도 있지만, 대회 이름인 '동해(東海)'가 일본 언론을 통해 언급된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동해를 '일본해(日本海)'로 표기하고 국제적인 명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월 아베 신조 총리는 이를 변경할 근거가 없다고 발언해 동해 표기법 논란을 부추긴 바 있다.

일본프로골프투어가 참여하지 않았던 지난해까지는 일본 언론이 의도적으로 대회 언급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직접 주관사인 데다가 각 투어 상위 40명

이 신한동해오픈 출전권을 가지기 때문에 일본 프로선수들이 대거 참여한다. 따라서 일본 언론이 이번 대회를 어떻게 표기하는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이다.

아울러 신한동해오픈은 라운드를 마친 외국 선수가 프레스룸에 와서 인터뷰하고 영상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일본 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에 '동해'란 이름이 널리 퍼지는 것도 신한금융이 이번 대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인 셈이다.

신한동해오픈은 1981년 일본 간사이 지방에 거주하던 재일동포 골프 동호인이 모국의 골프계와 친선을 도모하고 국제적 선수 육성을 위해 창설한 대회다. 대회 이름이 동해오픈으로 지어진 것은



일본에서 고국을 바라보려면 동해를 바라봐야 했기 때문이다. 신한동해오픈은 재일동포가 힘을 모아 골프 대회 최고 상금으로 창설된 이래 국내외 스타급 선수들을 배출하며 메이저 대회로 자리 잡았다. 지난 대회는 한국의 박상현 프로가 우승을 차지했다. 역대 최다승은 최상호가 3승(5, 13, 15회)을 기록하고 있다.

조용병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양후부 KPGA 회장, 초민단 아시안 투어 최고운영책임자(COO), 아오키 이사오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회장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해 대회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청라 베어즈베스트 골프클럽에서 개최된다.

곽진산 기자 jinsan@

가스안전 행복환 승인
Happy Check

2019 국가안전대진단 2019.2.18~2019.4.19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이사철 가스사고 예방은 막음조치

가스안전은 행복입니다!

이사철 가스사고의 원인은 가스시설 철거 및 시공불량으로 인한 막음조치 미비!

반드시 가스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폭발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거나 연결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

이사 3일전 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하여 가스 막음조치 신청!

도시가스 지역관리소/LPG 가스 판매업소/가스전문시공사에 의뢰하여 가스 막음조치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원룸 잡기도 ‘별따기’ 별 보며 서울로 퇴근”



‘세종의 이방인’ 행안부

5일 오후 6시, 정부 제2세종청사 앞엔 긴 줄이 늘어섰다. 서울행 통근버스를 기다리는 공무원들이다. 금요일이면 퇴근 시간 전부터 늘 북적였지만 올 초부터 줄이 더 길어졌다. 행정안전부 사람들이 합류해서다. 행안부는 올 1월 서울 광화문에서 세종으로 옮겨와 등지를 틀었다. 1948년 내무부로 출범한 뒤 71년 만이다. 아직 입주할 청사가 완공되지 않아 국(局)별로 제2청사와 민간 건물로 분산 배치돼 두 집살림을 하고 있다.

통근버스 줄에서 알 수 있듯이 행안부 공무원 중 아직 세종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세종과 수도권을 오가는 사람이 많다. 주중에 세종에서 머물다 주말엔 집으로 향하는 것이다.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통근버스 이용객은 지난해 연말 약 1800명이었지만 행안부가 이전한 후인 2월에는 2000명을 넘어섰다. 차편도 65편에서 75편으로 늘었다. 한 행안부 공무원은 “중고 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은 세종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혼자 (수도권) 집과 청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집계한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의 거주율은 89.6%다. 근무

71년 만에 1월 광화문서 세종으로 이주 청사 미완공 민간건물 등 분산 배치

행안부 직원들 가세로
1일 평균 통근버스 이용
2000명으로 늘어

부동산 시장도 ‘원룸대란’
1년새 월세 두 배로 경증



자 1만3800여 명 중 1만2000명 이상이 세종에 거주한다는 의미다. 다만 여기에는 주중에만 세종에 머무는 ‘나홀로족(族)’들이 포함돼 있다. 적잖은 수가 허수다. 행안부 이전으로 이 허수가 더 늘었을 것이라는 게 관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행안부 이전은 세종의 부동산 시장도 바꿔놓았다. 연초에 초임 사무관 발령과 행안부 이전이 겹치는 바람에 원룸 물량이 동났다. 특히 교통 여건이 좋은 어진동과 나성동 일대 원룸은 일찌감치 물량이 소진돼 부동산 업소에서도 발을 구를 정도다. 공급난에 월세도 덩달아 올랐다. 지난해 여름 월세 30만 원이면 방을 구할 수 있었지만 이젠 50만 원을 쥐고 구하기 어렵다.

반면 아파트 시장은 한산하다. 주중에만 홀로 세종에서 지내는 공무원이 많다 보니 목돈이 필요한 아파트 입주를 꺼리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가족과 함께 내려온 공무원들이 아직 적다 보니 실속 있는 아파트 계약은 많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원룸은 구하기 어렵고 아파트는 부담스럽다 보니 여럿이 방을 나눠쓰는 셰어하우스를 찾는 사람도 늘었

다”고 귀띔했다.

다른 부처 공무원 사이에선 행안부 이전을 두고 “고소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지방 분권을 다루는 주무 부처가 정작 세종에는 늦깎이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사무관은 “세종이 허허벌판일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자리가 잡히려 하니 내려온다. 한동안 고생 좀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직권을 쥐고 있어 정부 내 ‘갑(甲)’으로 꼽히는 행안부 이전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과장은 “세종의 기반을 닦아 놓으려면 행안부에서 번번이 휘방을 놓았다. 이제 자기들도 내려왔으니 그 힘을 갖고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제대로 만드는 데 적극 나서지 않겠느냐”고 했다.

행안부는 조만간 동병상련 부처를 만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여름 과천에서 세종으로 내려온다. 한 행안부 주무관은 “같은 처지가 생기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가뜩이나 좁은 세종 도로가 더 막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웃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세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6일 오후 수도권 퇴근 버스로 향하고 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아파트 특별공급에 결혼하고 나니 이젠 청와대 파견도 부럽지 않아요”

‘세종 토박이’ 된 사무관들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20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약 1만2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여기에는 허수가 많다. 이는 세종시에 거처를 마련한 공무원의 비율로, 정주율과 다르다.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주율은 직급이나 혼인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다. 과장급 이상은 자녀 교육이나 배우자의 경제활동 문제로 홀로 세종에 내려온 경우가 많다. 대다수가 오피스텔이나 공동숙소에서 평일을 보낸다. 이들은 세종시 거주 인구이긴 하지만 정주 인구는 아니다.

반면 사무관(5급) 이하는 거주율과 정주율이 거의 일치한다. 대부분 미혼이라 이주의 걸림돌이 없고, 파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지도 고정돼서다. 특히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거나, 세종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면 세종시를 떠날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

지난해까지 분양된 세종시 공공주택은 2014년 1만2569호, 2015년 1만5709호, 2016년 1만5843호, 2017년 5934호, 2018년 4995호에 달한다. 이 중 50~70%가 공무원 특별공급 물량이었다. 정부세종청사 1단계 이전(2012년)과 함께 이주한 공무원들은 이미 입주를 완료했고, 2단계 이전(2013년) 이후 입직한 공무원들은 울

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한다.

임용 7년 차인 한 사무관은 “사무관들은 거의 다 세종에 산다고 보면 된다”며 “나도 조만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새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세종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처 내에선 드물지만 다른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부부도 꽤 있다”며 “세종에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와대나 위원회 등 파견에도 거의 지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 번 세종에 정착하면 타 지역으로의 인사 발령도 꺼린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소위 ‘에이스’들이 모인 기획재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출세보다 워라벨(일·생활 균형, Work-life balance)이 우선인 건지 파견근무 지원이 예전만 못하다”며 “주거비용이나 업무량 등이 늘어가는 것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 덕에 앞으로 10년 안팎이면 세종시 공무원 대부분이 세종시 정주인구가 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자녀가 중학생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직업이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마찬가지로 세종이 주된 생활 터전이 된 공무원들은 세종을 벗어나기 어렵고,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주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하지만, 만족에 끝이 어딴습니까?

NH투자증권이 고객만족 부문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객 만족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고객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투자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가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새로운 문화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8-05002호(2018-12-19~2019-12-17)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NH투자증권

구호성금·의료단 파견...물심양면 '상처 보듬기'

삼성, 20억 성금·구호키트
현대·기아차, 차량 무상점검
SK, 복구현장용 LTE무전기
LG, 가전 수리·통신 서비스
롯데, 생필품 키트 등 손길



재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현황

그룹	성금액	지원 내용
▶ 삼성	20억 원	의료지원, 대피소 전자제품 무상 공급
▶ 현대차	10억 원	도시형 세탁구호차량 투입, 차량 무상점검
▶ SK	10억 원	LTE무전기, 전력케이블 등 지원
▶ LG	10억 원	생필품 지원, 가전제품 수리, 이동기지국 설치
▶ 롯데	10억 원	칸막이 텐트, 숙우 등 담긴 생필품 구호 키트

도 물류센터에서 생수, 컵라면, 즉석밥, 통조림, 물티슈 등 2000명 분의 식료품이 즉시 전달됐다.

농심은 신라면, 육개장 사발면 등 컵라면 제품 2만 개를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속초 시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삼양식품도 라면과 우유 등을 지원한다. 강원도청과 피해지역 등을 조율해 라면 1000박스, 스낵 200박스, 우유 1만5000개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재계가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 고성군·속초시 주민을 돕기 위해 성금 지원과 긴급 구호활동에 나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성금과 구호키트 등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임직원 봉사단과 의료진을 파견하기로 했다.

계열사별로 보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은 총 20억 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하기로 했으며, 구호 키트 500세트는 이미 지원을 마무리했다. 임직원 봉사단을 현장에 파견하고, 의료진도 보내 주민들의 건강을 살필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피해 복구 성금 1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한편,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도

시형 세탁구호차량' 3대를 피해 지역에 투입한다.

현대·기아차는 피해를 본 고객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차량 무상 점검을 하고 수리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해준다. 렌터카 사용료도 10일간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SK그룹은 10억 원을 지원하고, 관계사별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은 화재 발생 이후 총 300여 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피해 복구를 돕고 있다. 또 복구 현장용 LTE무전기 지원에 이어 속초생활체육관 등 주요 대피소에 비상식품, 담요, 전력 케이블 등을 지원

하고 있다.

LG그룹 역시 성금 10억 원을 기탁했다. LG 측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돕고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성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계열사별로도 산불 피해 주민 돕기에 나서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을 지원한다. LG전자는 이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해 피해 가정의 고장 난 가전제품 수리 활동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이동기지국을 설치하고 현장 지원 인력을 투입해 원활한 통신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통업계도 산불 피해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롯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복구기금 4억 원을 추가로 기탁한다. 롯데 유통사업 부문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연간 6억 원 규모의 재해 긴급 구호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피해 지역에는 롯데와 재해구호협회가 재해·재난 발생을 대비해 사전에 제작해둔 이재민 대피소용 칸막이 텐트 180여 개와 담요, 숙우 등이 담긴 생필품 구호 키트 400세트가 먼저 지원됐다.

또 롯데의 국내 최대 유통망을 활용해 피해 지역과 가장 가까운 세븐일레븐 강원

CJ제일제당도 구호 물품을 보내기로 했다. 산불 지역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물품과 규모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즉석밥류와 생수·간식류 등을 피해 지역에 지원할 전망이다. GS리테일은 생수·컵라면·간식·화장지·은박매트 등 생필품 1000인분을 긴급 지원했다.

이 밖에 현대중공업그룹은 성금 1억 원을 기탁하고, 구호물자 및 인력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등 계열사는 복구장비와 구급약품, 생필품을 준비하고 의료진 및 구호 인력도 긴급 구성해 피해 복구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송영록 기자 syr@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국토부·건설업계 “터전 잃은 이재민 살 곳 마련” 한뜻

LH·도로공 등 공기업 연수시설에 이재민 이주 시작
부영그룹도 강원 지역 부영아파트 224가구 주거 지원

지난주 강원도에 사상 최악의 화마가 덮치며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국토부와 건설업계가 이재민 이주 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강원도 산불지역 이재민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주택토지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연수시설 중 지원 가능한 객실 수를 파악해 이주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6일 기준 동해지역 이재민 전원(9가구, 23명)이 임시 대피소에서 철도공단 연수원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고 강릉 지역은 이재민 주거지원 수요조사 결과, 농촌 특성상 마을회관을 선호해 각 지역 마을회관 6개소로 분산 이주했다.

또한 속초·고성지역의 이재민들은 7일부터 이재민별로 거주를 희망하는 위치의 연수시설로 단계적으로 이주할 예정이다.



부영그룹은 강원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동해시 쇠운동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100가구를 숙소로 제공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부영그룹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합동으로 강원도 산불지역 이재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거지원 상담부

스'를 설치했다.

김영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신속한 주거지원을 통해 이재민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부영그룹은 강원지역 산불 피해 구호를 위해 이재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위치한 부영 아파트 중 224가구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6일 국토부에 전달하고 협의에 들어갔다.

이번에 지원하는 부영아파트는 속초시 조양동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104가구와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20가

구, 동해시 쇠운동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100가구 등 총 224가구를 이재민들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한다. 부영은 국토부 및 해당 지역 지자체와 협의해 이재민 수요를 파악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대로 이재민들이 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강원도 속초 소재 공무원 수련원을 고성 일대 산불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로 개방한다.

한편 건설사들 역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제조합과 함께 강원도 산불 피해민을 위해 구호 성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액이나 지원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지원할 계획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사는 곳은 달라도 꿈은 같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사는 미나도 한국에 사는 영민이도 '선생님'이라는 같은 꿈을 꾸니다
서로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적은 편지에 '희망'을 담아 전합니다

희망편지쓰기대회

'산불피해 복구' 추경 대신 예비비로 우선 활용

생계·구호비 신속 지원 필요
추경 편성 땀 20일 정도 걸려
당정은 이달 말 추경 포함 검토
주거·기반시설 복구비 반영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행안위 차원에서 추경 예산에 복구 지원비가 포함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그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단, 추경 목적에 산불피해 지원을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크다.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신속을 요하는 산불피해 지원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산불피해 복구비용을 추경에 넣기보다는 목적예비비(1조 8000억 원) 등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산불 등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 통상 20일 정도가 걸린다. 예비비를 활용하면 복구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재정을 투입할 수 있지만, 추경을 활용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계비, 구호비 등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걸 다 추경에 넣으면 복구계획을 세워놓고도 국회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속을 요하는 인명피해 구호금과 이재민 생계비로는 예비비가 투입되고, 주거·기반시설 복구비용 등은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예비비를 모두 사용하면 다른 재년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추경에는 예비비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예산으로 목적예비비가 우선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덜한 주거·기반시설 복구 등은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경안을 편성 중이다. 추경은 미세먼지 경감과 경기 대응, 일자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효과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이달 중순이면 개략적인 추경안의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5조~9조 원으로 예상된다.

변수도 있다. 국회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포함 지진이나 강원도 산불 지원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산불 현장을 찾아 "오늘 정부에 이곳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추경에도 (산불피해) 복구비용을 편성할 수 있도록 얘기했다"고 전했다. 국회

오늘 열리는 4월 임시국회 곳곳 '지뢰밭'

김연철·박영선 장관 후보자
문 대통령 임명 강행 예상
야 반발로 대결국면 불가피
탄력근로·최저임금도 대립

여야가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임시국회를 연다.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 임금제도 개편 등 민생·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정국 경색이 예상돼 제대로 법안 심의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된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

보자 임명을 8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임명을 위한 요건이 갖춰진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대결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이번 국회에서는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 기준법 개정안과 최저 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 임금법 개정안 논의가 쟁점이다.

여야는 3월 임시 국회에서 두 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합의가 안 돼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재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당은 '1년 확대'와 함께 주휴 수당 폐지를 주장하며 맞서 있다.

다만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난 사업주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여야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극적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있다.

미세먼지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와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을 이달 25일 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편안과 사법개혁안의 패스트 트랙 처리 여부와, 유치원 3법,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방안 등 현안과 서비스 산업 발전법 등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조현정 기자 jhj@



장하성 신임 주중대사 中 도착
장하성(가운데) 신임 주중대사가 7일 중국 서우두(首都)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공항에는 장서평(張社平) 중국 외교부 아사사 참사관 등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이 나와 장 신임대사를 맞았다. 연합뉴스

탁현민, 민주당 홍보위원장 맡을 듯

내년 총선 지원... 백원우·이철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내정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탁현민(사진 왼쪽)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홍보 전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안으로 조만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당 홍보기획을 이끌어 달라고 공식 제안하고, 탁 자문위원이 이를 수락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직을 수락한 양정철 전 비서관은 다음 달 14일 김민석 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는 백원우(가운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철희(오른쪽)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백 전 비서관의 경우 한때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연구원 부원장을 맡아 인재 영입을 측면 지원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총선 필승을 목표로 인재 영입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하늬 기자 honey@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당신의 금융생활 UP

AllOne BANK

전화번호만으로 가능한 송금기능에서 대화형 뱅킹서비스인 인공지능 가상상담, 24시간 365일 자유롭게 가입 가능한 금융상품, 포인트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올원뱅크까지- 올원뱅크가 모든 금융을 하나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모바일로 편한 생활 금융 올원뱅크

올원 간편송금
계좌번호 없이 전화번호만으로 쉽고 간편한 송금 가능

인공지능 가상상담
더욱 스마트하고 편리해진 대화형 뱅킹서비스

잠들지 않는 은행
24시간 365일 어디서나 자유로운 금융상품 가입

모든 올원뱅크
포인트로 이벤트 참여 및 다양한 경품 응모에 사용

QR코드로 간편하게 올원뱅크를 검색해보세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2019-1259 (2019.2.22.~2020.2.28.) ※ NH농협은행 디지털채널부

NH농협은행

농촌행복도 국민행복도

살리고 높이고

다양한 농업·농촌 사업과 고객 서비스로
우리 농업을 살리고
국민 행복을 높이겠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NH농협

경기하강 수위 높은 KDI, 경제 진단 '둔화→부진'

경제동향 4월호

생산·판매·설비투자 모두 ↓
증가세 유지했던 소비 뒷걸음
경기 동행·선행지수도 하락

KDI 경기 진단

2018년 10월	개선추세
2018년 11월~올해 3월	둔화
4월	부진

최근 경제지표들을 부문별로 보면 긍정적인 신호를 찾아보기 어렵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2월 전산업생산은 1.4%, 광공업생산은 2.7%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소비)도 1월 4.1% 증가에서 2월 2.0% 감소로 꺾였다. 설비투자는 2월 26.9% 감소하며 전월(-17.0%)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고, 건설기성액(불변)도 10.6% 줄며 두 자릿수 감소를 이어갔다.

눈에 띄는 점은 그간 생산·투자 부진에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해왔던 소비의 부진이다. KDI는 "2월 소매판매액은 설 명절 이동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고, 1~2월 평균으로도 증가 폭이 축소되면서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수출은 3월 8.2% 줄었다. 전월(-11.4%)에 비해선 감소 폭이 소폭 축소됐으나, 추세상론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KDI는 "3월 수출(금액 기준)은 반도체, 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했고, 2월 수출물량도 감소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점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P) 하락해 11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3P 내리며 9개월째 하락했다. 두 지표가 9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은 관련 통계가 제공된 197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그나마 고용에선 2월 취업자 증가 폭이 26만3000명으로 확대되며 1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단, 최근의 취업자 증가는 고용시장 호조보다는 노인 일자리 등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크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우리 경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판단이 '둔화'에서 '부진'으로 바뀌었다. '경기 하강 경보' 수위를 높인 것이다.

KDI는 7일 발표한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해 10월까지 우리 경기를 '개선 추세'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연속 '둔화'로 진단했다. 이달에는 처음으로 총평에서 '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우려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예산 부족에 로또 된 '농업수입 보장보험'

농민 가입하고 싶어도 못해... 가입률 2~3% 불과

농가의 수입 안정을 위해 시범 도입한 '농업수입보장보험'이 예산 부족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주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다른 농업보험과 달리 풍작에 따른 가격 하락 피해도 보상한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지만 예산이 부족해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 '로또 보험'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7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양배추 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농지 면적은 81ha로 가입 대상 지역(3173ha)의 2.2%에 불과하다. 양파 수입보장보험도 가입 대상 지역(6013ha) 중 3.5%(212ha)만 가입했다. 이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예산 부족 때문이다.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데, 이 보조금 예산 한도 때문에 가입을 원하는 농가 수요를 받아들 수 없는 형편이다. 일

부 품목은 선착순으로 보험 가입을 받아도 하루 만에 예산이 동났다. 이 보험이 감당하지 못하는 과잉공급 물량은 결국 산지 폐기나 정부 구매 등 과거처럼 정부 지원에 의존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양배추와 양파는 올해 가격이 급락한 대표적 작물이다. 평년보다 값이 각각 27.9%, 19.2%나 떨어졌지만 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김수일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장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원호 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보험료 조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 부담을 늘리지 않아도 농업수입보장보험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산불 이재민, 주거안정 신속 지원"

홍남기(오른쪽)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양양군 용천리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해운업, 컨테이너 중심으로 별드나

컨테이너 이달 BSI 전망 '106'
3월보다 12P↑ 채산성도 119
해양진흥공사 설립 업황 힘받아

해운업이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3월 해운업 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 대비 6포인트(P) 상승한 80을 기록했다. 해운업 BSI는 기업가의 현재 경기수준에 관한 판단과 전망 등을 설문 조사해 전반적인 해운 경기 동향과 전망을 파악한다.

BSI가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긍정 응답 업체 수가 부정응답 업체 수보다 많음을 의미하며 거꾸로 100 이하면 그 반대다.

3월 해운업 전체 BSI는 80으로 아직은 전반적인 기업경기가 부정적이다. 그러나 컨테이너의 경우 3월은 94, 4월 전망은 106으로 3월은 전월 대비 44P, 4월은 전월 대비 12P나 올랐다. 컨테이너는 파산한 한진해운의 주력 분야다.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6년 11월 컨테이너 BSI는

100, 같은 해 12월 94 수준을 유지했으나 파산한 2017년 2월에는 67로 크게 떨어졌다.

3월 전체 업황 BSI는 80에 머물렀지만, 채산성은 89로 전월 대비 8P 올랐다. 특히 컨테이너는 119로 전월 대비 69P나 상승했다. 전체 자금 사정은 90(컨테이너 125), 전체 매출은 92(컨테이너 100)로 100에 근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 것이 전체 업황을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올해 2조7142억 원을 해운 재건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조 및 자본확충 1조1910억 원, 한국해운연합(KSP) 경쟁력 강화 3000억 원, 컨테이너 3000억 원, 친환경설비 장착 4000억 원, 친환경 선박 보조금 125억 원 등 2조2035억 원을 지원한다. 투자보증의 경우 보증 3000억 원, 매각 후 채임대(세일앤리스백) 1000억 원, 친환경 선박 신조 지원 957억 원, 터미널 투자 100억 원 등 5107억 원을 지원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EU 기한' 내일인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차 여전

단체교섭·쟁의행위 논의 평행선... 회의 일정조차 못잡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달 초까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뤄내야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유럽연합(EU) 무역협의회 예정일인 9일까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 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다음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지난해 7월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왔다. 지난해 11월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담은 공약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양측의 입장이 맞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영계는 파업 시대 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한-EU 무역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EU 측에 설명해야 한다. EU는 이날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다음 분쟁 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으로 번져 노동기본권 후진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역위원회 EU 측 수석대표인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무역위원회 당일 기자회견을 연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번 주에 전체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며 "그동안 논의 내용을 국회로 넘길지, 대화를 더 진행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작년 '전세보증 반환보증 사고' 372건... 10배 이상 증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책임지는 '전세보증 반환보증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3건이던 반환보증 사고는 지난해 372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까지 216건을 기록했다.

반환보증 사고란 세입자가 가입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

지 못해 HUG가 대신 이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 2017년 0.87%이던 사고율은 지난해 1.59%로 높아졌고, 올해 3월까지 2.56%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다.

김하늬 기자 honey@

공공 발주 정보화사업 입찰담합 7곳 적발

국토지리정보원 등이 발주한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한 측량용역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새한협업, 대원협업, 씨엠월드, 한국에스티, 우대칼스, 비온시아노베이터 등 7곳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새한협업, 대원협업, 씨엠월드, 한국에스티, 우대칼스 등 5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한협업, 씨엠월드, 대원협업은 2015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

이 실시한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 용역입찰(계약금액 36억 원)에서 투찰가격과 함께 새한협업을 낙찰사로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같은 해 7월에는 한국에스티, 씨엠월드, 우대칼스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계약금액 6억7000만 원)에서 투찰가격과 한국에스티를 낙찰사로 정하는 등 담합했다. 비온시아노베이터와 대문정보는 2015년 5월 조달청이 발주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 용역입찰(계약금액 5억 원)에서 비온시아노베이터를 낙찰사로 정하고 입찰에 나섰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100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 신년축하식 기념사진
(중국 상하이, 1921.1.1)

4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00번째 생일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100번째 생일

20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00번째 생일입니다

그 시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않는 **메모리**처럼

SK하이닉스가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연준에 '거수기' 쫓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금융 완화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식인 연준 이사 자리를 연이어 자신의 측근들로 채우고, 5일(현지시간)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노골적인 속내를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부채와 자산 버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적 개입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면 금융 시장에 왜곡이 확산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갓파더스피자의 최고경영자(CEO)와 전미요식업협회(NRA) 회장을 지낸 허먼 케인을 공식인 연준 이사로 추천했다.

올해 73세인 케인은 1992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이사회에 합류해 1995~1996년 이사회 의장을 지냈다. 2011년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검은 돌풍'을 일으켰으나 성희롱 의혹과 불륜 폭로 등 잇따른 성추문에 중도 사퇴했다.

연준 이사직은 총 7석인데, 현재 2석이 공석이다. 얼마 전 트럼프는 그중 하나에 보수계 경제평론가인 스티븐 무어를 지명했다. 무어도 대선에서 대형 감세를 입안하는 등 트럼프 진영의 핵심 인물이었다. 케인과 무어 둘 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잘못됐다"며 트럼프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는 요직에 자신의 측근을



스티븐 무어

허먼 케인

파월에 금리인하 압력 강화 속 공석 이사 자리에 또 측근 임명 중앙銀 독립성 훼손 우려 확산

배치하면서도 연준만큼은 독립성을 지켜 주는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지명했다. 그러나 연준이 작년 12월 트럼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태도를 바꿨다. 당시 트럼프는 제롬 파월 의장을 해임까지 하려 했다. 이후 파월이 입장을 바꿔 금리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트럼프는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기를 크게 둔화시켰다"고 재차 비판하며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준은 올해 금리 인상을 보류할 계획

이지만 그제 조직 전체의 입장은 아니다.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의장과 부의장 등 이사 7명(현재 5명)과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 5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는 "올해와 내년 모두 한 차례씩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매파도 여전히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측근을 보내 금융 정책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개입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60년대 린든 존슨 정권 당시, 대통령의 금리 인상 중단 요구로 연준이 1년 이상 금융 긴축을 보류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2%에서 4%로 뛰었다. 재정적자까지 전후 최악의 수준에 달하면서 달러에 대한 불안이 대두, 금본위제를 포기한 1971년 '닉슨 쇼크'로 이어졌다.

이번에 연준 이사에 지명된 케인은 과거 불륜과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고, 무어도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상원에서 통과될지 불투명하지만 트럼프가 이례적인 인사안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연준에는 강한 압력이 된다.

전문가들은 기축 통화인 달러를 움직이는 미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면 세계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입을 모은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세계 경제 요동치는데 금값은 '요지부동' 왜?

더 큰 악재 와야 '금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과 증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金)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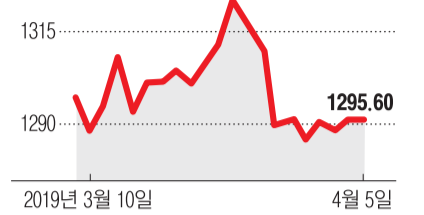
5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값은 전날보다 0.1%(1.30달러) 오른 온스당 1295.60달러(약 147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금값은 3월 하순부터 하락세가 계속돼 현재는 2월에 기록한 10개월 만의 최고치보다 약 4%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세계 경기가 둔화하거나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우면 자금을 금같은 안전자산으로 도피시킨다. 그러나 현재 금값에는 이런 현실이 그다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자가 붙지 않는 금의 경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보류 시는 유력한 매수 재료였다. 2월까지 계속 오르던 금값을 억제한 것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 반발이다. 나중이후자이신문에 따르면 3월 하순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개선이 확인된 후 중국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누그러졌다. 4월 들어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선명해지는 등 세계 경제를

금값 추이

(단위: 온스당 달러)



견인하는 미국과 중국 경기가 견조하다는 관측이 확산,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에 매도세가 유입됐다.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금값과 연동되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났다. 4월 초 전 세계 ETF가 추종하는 금 보유량은 1719t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 새 약 1%에 해당하는 20t이 유출됐다. 단기매매 목적으로 헤지펀드 등이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금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이탈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 혼란을 피하기 위한 헤지 수단으로 금을 매입할 수 있다.

불안한 증등 정세도 금값 상승에는 호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시리아령인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 중동 국가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브라질 북부 모주 강의 아우사 비아리아 다리가 6일(현지시간) 새벽 대형 뱀목에 들이받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다리를 건너던 자동차 2대가 추락해 최소 5명이 실종됐고, 주요 곡물 수출 항구로 이어지는 교통로도 끊겼다. 브라질레나/로이터연합뉴스

브라질 다리 붕괴... 대두·옥수수값 폭등하나

항구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 끊겨... 최대 곡물 수출국 타격

브라질 북부에서 6일(현지시간) 새벽에 발생한 다리 붕괴 사고로 대두와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의 해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북부 파라주 바르카레나시 인근 모주 강에서 대형 뱀목이 아우사 비아리아 다리를 떠받치는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리 전체 868m 가운데 200m 정도가 무너졌고, 다리를 건너던 자동차 2대가 강으로 추락하면서 적어도 5명이 실종됐다.

현지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는 희생자 수색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희생자가 죽어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

했다. 파라주는 곡물 수출항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다리는 파라주의 주도인 벨렝 시와 내륙 도시들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우회로가 있기 때문에 곡물 수출이 곧바로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물류 비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농업 관련 컨설턴트인 코리 벨비는 "이 다리가 재건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사고의 영향을 받는 항구는 브라질 대두 수출의 10~20%를 차지한다. 브라질의 곡물 수출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대 규모

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 2018~2019년 브라질산 대두 생산량 전망치를 1억1650만톤으로 2월보다 5만 톤 낮춰 잡았다. 주요 산지의 기상 악화가 이유였다.

브라질은 역대 좌파 정권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각지에서 인프라 붕괴가 잇따르고 있다. 1월에도 철강 대기업 발레가 보유한 광산 댐이 무너져 300여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철광을 채굴하면서 나온 찌꺼기가 쌓였다가 무너졌다. 이후 하류 쪽으로 산화철을 포함한 유해 잔류물이 흘러내리면서 심각한 환경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당시 사고의 영향으로 브라질산 철광석 수출이 감소해 국제 철광석 가격 상승을 촉발시켰다. 브라질 당국은 댐의 안전 관리 소홀 혐의로 발레 직원 5명을 구속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공장에서 한 직원이 '737맥스8' 조립 라인으로 들어가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보잉 "사고기 737맥스 20% 감산"

재정적 영향 최소화... 기존 월 52대로 42대로 줄여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6개월 동안 두 차례의 추락 참사를 일으킨 '737맥스8' 여객기의 생산을 줄이기로 했다.

보잉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달 중순부터 737맥스8의 생산량을 월 52대에서 42대로 약 2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데니스 뮐렌버그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에서 "737맥스8의 생산량 감축은 항공사들의 인도가 중단됨에 따라 임시로 조정된 것"이라며 "보잉은 운영상의 혼란과 생산비용 변화로 인한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자들과 꾸준한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737맥스8에 있는 결함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집중해 737맥스8을 다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종으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뮐렌버그 CEO는 또 "이번 생산 감축은 고용문제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며 고객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보잉 항공기의 설계와 개발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특별위원회를 개설하겠다"고도 했다.

737맥스는 약 5개월간 두 차례의 추락 사고를 일으켜 총 346명이 사망했다. 보잉은 지난달 일어난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이후에는 모든 737맥스의 운항을 중단했고, 운항 재개를 목표로 소프트웨어 수정 등을 진행해왔다.

보잉은 이날 2건의 사고에 유사성이 있다며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뮐렌버그 CEO는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다. 사고로 고통받은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보잉과 미 연방항공청(FAA)은 737맥스8의 사고 원인을 조종사 책임으로 돌렸으나 전날 에티오피아 교통당국이 "승무원들은 보잉이 제공한 모든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했지만 여객기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하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FAA는 현재 737맥스8의 안전성 재검토에 착수했다. 미국 의회의 연방수사국(FBI), 검찰 등도 737맥스8의 안전 승인과 관련해 조사 중이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혁신적 아이디어의 원천”... 게임이 세상을 바꾼다

게임 레볼루션

AR 대중화 이끈 '포켓몬고'
알파고 개발 하사비도 게임광
플레이스테이션 반도체 SW가
TV 등 가전 네트워크 앞당겨
재미있게 목적 달성 '게임화'
보험사·학교 등서 접목도

미국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이 풍부한 컴퓨터 자원을 활용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게임이다. 최근 3주 사이에 구글과 애플이 잇따라 새로운 게임 서비스를 발표했다.

그만큼 게임산업은 풍부한 수익 창출원이다. 리서치 업체 뉴주(New Zoo)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글로벌 게임시장 규모는 총 1340억 달러(약 152조2374억 원)에 달했다.

게임은 더 나아가 많은 실리콘밸리 기업과 그 종사자들에게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면서 사회 변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최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이 분석했다.

우선 세계적 IT 기업가들을 살펴보면 게임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람이 많다. 게임에서 나타난 전례 없는 표현이나 높은 컴퓨터 성능을 추구하는 자세가 기술을 진화시키는 힘이 되고 있다.

프로 바둑기사들과의 승부에서 전승을 거두면서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음

을 세간에 알린 알파고. 이 알파고를 개발한 영국 AI 업체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는 원래 열렬한 게임광이자 개발자였다. 딥마인드는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바둑 등의 게임을 무대로 AI 기술을 갈고 닦았다. 딥마인드 측은 게임이 에너지 절약이나 신소재 발견 등 혁신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나이언틱의 존헝크 공동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게임은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기 좋은 분야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나이언틱이 개발한 포켓몬고는 증강현실(AR)을 사람들의 뇌리 속에 깊게 각인시켰다.

게임산업 발전사

1983	패밀리컴퓨터(닌텐도) 출시
1989	게임보이(닌텐도) 출시
1994	플레이스테이션(소니) 출시
2001	엑스박스(마이크로소프트) 출시
2007	아이폰(애플) 출시
2014	아마존, 게임 전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트위치 인수
2016	포켓몬고 서비스 시작
2017	닌텐도 스위치 출시
2019	구글과 애플, 새 게임 서비스 발표

※ 출처: 니혼게이지신문

닛케이의 소니가 2003년 세계 최초로 게임을 중심으로 한 거대 IT 플랫폼을 구성할 기회가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소니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기본 소프트웨어를 TV 등 가전에도 탑재해 네트워크화하면서 콘텐츠 전송 표준을 장악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소니 내부에서 비교적 신규 사업에 속하는 게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그 결과 혁신의 주도권은 실리콘밸리에 넘어갔다고 닷케이는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게임의 수법이나 발상을 응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넓다며 게임을

무시하면 국가경쟁력마저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에 몰두하거나 성공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은 사람의 행복감을 높인다. 노력하면 손에 넣을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교류 등 게임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소들을 현실사회에 잘 접목하면 사람들의 적극성을 더욱 끌어올려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요소는 다른 분야에 접목하는 것이 바로 '게임화(Gamification)'다. 보험업체들이 가입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런 게임화가 적용된다.

또 업종에 상관없이 경영에도 게임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책제가 기업의 안정적 수익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 구독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면 편안한 사용자 경험이 필수적이다. 일상 업무에도 게임의 요소를 적용하면 직원들이 일하는 기쁨을 느끼고 팀플레이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게임의 혁신 응용 사례

다운로드·콘솔 없이 게임 즐긴다

구글, 클라우드 기반 '스테디아' 연내 출시... 닌텐도·소니도 가세

게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PC와 콘솔이 절대강자이던 게임 시장에 '클라우드'가 무서운 기세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게임업체들의 신규 대결도 치열하다. 최근 구글과 텐센트 등 IT 기업들이 클라우드 게임을 선보이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통 강자인 소니와 닌텐도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발표하며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클라우드 게임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게임시장 조사업체 뉴 주(New Zoo)가 발표한 '2018 글로벌 게임 마켓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우드 게임은 매년 200~300% 매출 성장을 유지하며 차세대 게임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IHS마르케트는 클라우드 게임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지출이 2018년 2억3400만 달러였다고 밝혔다. 또 2023년이 되면 10억5000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클라우드 게임은 서버에 저장된 게임을 인터넷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별도의 다운로드나 설치도 필요 없다.

발빠르게 움직인 건 구글이었다. 구글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례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에서 클라우드 기반 게임 플랫폼 '스테디아(Stadia)'를 연내에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모두를 위한 게임 플랫폼'을 목표로 만들어진 스테디아는 구글 클라우드 서버에서 게임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다. 구글 크롬만 정상 구동되면 하드웨어 사양에 상관없이 PC, 노트북, 태



2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연례 '캠퍼스 파티 테크놀로지 축제'에서 게이머들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상파울루/AP뉴스

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중국의 새 강자 텐센트도 발을 들여놓을 태세다. 텐센트는 지난달 말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스타트' 웹사이트를 기습 공개했다. 광둥과 상하이 지역에 있는 사용자들이 스타트의 베타서비스(정식 서비스 공개 전 미리보기 형식의 서비스)에 참여 가능하다

전통적 게임업계 강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닌텐도는 스위치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했고 소니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도입한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인 '플레이스테이션 나우'를 출시했다.

너무나도 뛰어 들고 있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압축된 형태로 서비스하다 보니 좋은 사양으로 즐기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많은 양의 인터넷 데이터가 필요한 것도 단점이다.

그러나 미국 CNBC방송은 5G 서비스가 인터넷 속도 문제를 해결해 클라우드 게임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자연의 힘으로
피부를 다스리다
Uniquemi Premium Mask

유니키미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선유도 코오롱디지털타워 www.uniquemi.co.kr 고객센터 : 1577-9536~7

'채용비리·주가 조작' 얼룩 지우는 금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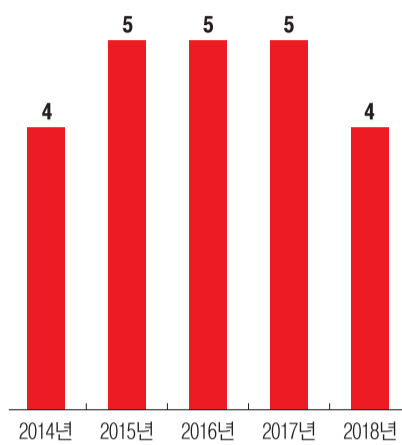
임직원 비위행위 잇따라 적발
청렴평가 매년 하위권 맴돌아

권익위 '청렴 컨설팅' 요청
금융 감독기구 명예 회복 기대

금융감독원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 컨설팅'을 받는다.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하위권을 기록하자, 외부 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실추된 감독기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달 27일부터 5일까지 열흘간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청렴 컨설팅 대상 기관 반부패 역량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청렴 컨설팅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부패 취약 업무의 처리절차, 조직 문화의 관행 등을 진단해 맞춤

금융감독원 종합청렴도 등급 (1~5등급)



형 대책을 제공하는 지원 정책이다. 올해는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 임직원은 법률 준수를 넘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감독기구로서 금융회사를 관리·감독,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종합 청렴도는 매년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5등급 중 4등급, 2015년부터 3년간은 연속 5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컨설팅을 통해 종합 청렴도 등급을 올려 감독기구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우리 조직이 저평가 되는 이유를 외부 시각으로 들여다 보고 내부적으로 고민하면서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낮은 등급을 받는 원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금감원 종합 청렴도 등급이 낮게 나오는 원인은 민원인,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자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계속되는 내부 비위 행위다. 종합 청렴도 최종 등급은 접수 환산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다.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한 등급씩 강등되는 식이다.

금감원은 2017년 9월 감사원으로부터 다수의 채용 비리 사례가 적발돼 '채용 비리의 온상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도 지난해 3월 최흥식 전 원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사임하고, 하반기에도 전직 부원장의 주가 조작, 직원들의 차명계좌 주식 거래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2017년 11월 꾸린 '인사 조직문화 혁신 TF'를 통해 임원 대규모 몰 같이 등 강도 높은 쇄신 작업을 진행했지만 계속해서 직원 비위 행위가 적발돼 내부 쇄신 노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신뢰도는 낮아진 상태다. 금감원 감찰실에서 내부 게시판에 설문조사 응답을 독려하는 글을 게시하자 한 직원이 욕설과 함께 "솔직히 위에서 잘해야지 밑에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나"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가 삭제되는 해프닝은 이를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권익위는 이달 설문조사·자료분석을 거쳐 4~6월 1차 컨설팅 회의, 7~9월 2차 컨설팅 회의, 8~10월 보고서 작성, 11월 성과 공유 및 평가 일정으로 금감원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메트라이프생명 당기순익 30% '뚝'

지난해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당기순익이 2017년보다 30% 이상 줄었다. 메트라이프 측은 "주가 하락에 따른 변액보험 손실과 책임준비금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 메트라이프생명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당기순익은 1266억 원으로 전년(2162억 원) 대비 896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2017년보다 순이익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30% 이상 감소한 곳은 한화생명과 동양생명 등 소수에 불과했다.

보험이익 감소와 책임준비금 전입액 증가가 결정적이었다. 지난해 보험이익은 844억 원으로 2017년 1085억 원보다 241억 원 줄었다. 또 책임준비금은 6523억 원으로 전년보다 3023억 원 급증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순이익 감소에 대해 "자사의 변액보험 수입 비율은 전체 수입보험료의 60% 수준"이라며 "변액 최저보증금과 금리 관련

"주가 하락에 변액보험 손실 커
고객 늘어나 책임준비금 확대"

주택담보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부동산 경기 부진·규제 영향... 2분기 中企 대출은 완화 전망

가계들은 국내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받겠다는 수요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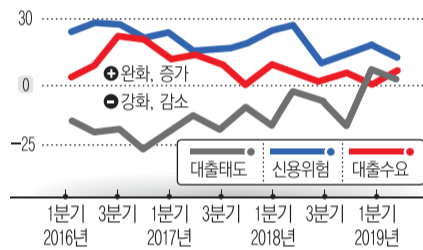
7일 한국은행은 2월 25일부터 3월 15일 까지 국내 199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 담당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행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1분기(1~3월) 중 국내은행의 대출 태도는 9를 기록해 직전 분기(-18) 대비 크게 올랐다. 2분기 중 대출 태도 전망도 4로 플러스를 유지했다.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를 통해 나온 이들 지수는 100과 -100 사이 값을 가지며 양(+)이면 완화 내지 증가라고 응답한 기관 수가 강화 내지 감소라고 답한 기관수보다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음(-)이면 그 반대 의미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1분기 실적치가 -3, 2분기 전망치가 -13을 기록했다. 이는 실적치 기준으로 2015년 4분기(-13) 이후 14분기(3년6개월)째 강화하겠다는 답변이 계속된 것이다.

반면 가계 일반대출은 완화 추세(1분기 실적 -3→2분기 전망 0, 이하 동일)로 돌아

국내은행 대출태도지수 추이 및 전망



서는 분위기다. 기업 부문에서는 대기업 대출이 중립(0→0)을 유지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은 완화세(17→17)를 이어갔다.

이승용 한은 은행분석팀장은 "기존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가계 주담대는 주택 관련 각종 규제와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강화세를 유지한 반면, 중기 대출 태도는 정부의 중소기업금융 인센티브 활성화 등으로 완화세를 유지했다. 예대율 산정시 가계와 기업 간 차등 적용되는 예대

율 규제 적용을 앞둔 것도 중소기업 대출을 완화하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신용위험은 1분기 18에 이어 2분기 13을 전망해 증가할 것이란 응답이 여전히 많았다. 대기업(7→7)의 경우 주요국 성장세 둔화가, 중소기업(27→20)의 경우 실적 부진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우려가, 가계(10→10)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소득 개선 제약 등이 각각 신용위험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다.

반면, 대출수요는 가계 주담대(-13→7)를 제외하고 증가할 것으로 봤다. 가계 일반대출(-7→7)은 고용부진 등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 증가로, 대기업(-3→7)과 중소기업(13→17)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운전자금과 여유자금 수요가 확대되면서 각각 늘 것으로 예상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중신보험 책임준비금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책임준비금이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고객 보호 성격이 크다"며 "신규고객이 늘어도 책임준비금은 늘어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메트라이프생명은 10조 원의 변액보험 자산을 운영한다. 자산 대비 변액보험 운용비율은 업계 5위 규모로 시장점유율 대비 상위권에 속한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29조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한화화과 교보가 각각 15조 원과 14조 원 규모를 운용 중이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을 돌파한 이후 연말 2000선까지 급락해 변액보험 손실률이 높았다.

순이익 급감으로 지난해 불거진 '매각설'이 또다시 언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자본 건전성이나 보험 영업에 문제가 없어 실제 매각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 Cloud Center → 자동분개 → 자동회계처리 엔진 → 자동입력 → 자동검증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법인세 MRI 검사, 부가치세 MRI 검사, 상업등기 알람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람서비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시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은 영원할 수 없기에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새로운 물을 찾아야 하기에

두산은 지구의 97%인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자금은 물이 부족한 몇몇 나라를 위한 기술이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로
1,700만 명이 사용 가능한
500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장점유율 세계 1위
(2011-2015 Thermal 부분, GWI 발표기준)

〈베트남 업체〉

LG화학, 빈패스트와 배터리팩 제조 합작법인 설립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 국제기준 프리미엄 제품 생산
기술 자문·디자인 노하우 전수로 동남아 시장 공략 확대**

LG화학이 베트남의 첫 완성차 업체인 빈패스트(VinFast)와 배터리팩 제조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7일 LG화학에 따르면 양사는 베트남 하이퐁시에 3630평(1만2000㎡) 규모의

배터리팩 제조 합작법인인 빈패스트 리튬 이온 배터리팩(VLBP)을 설립할 방침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9월 빈패스트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등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합작법인은 빈패스트에서 생산 중인 전기 스쿠터에 탑재되는 배터리팩을 제조하고 향후에는 전기차용 배터리팩도 제조할 예정이다. 빈패스트는 물류창고, 생산라인, 인력 채용, 공장 운영 등을 맡고, LG화학은 각종 설비와 장비에 대한 관리감독, 근로자 교육 등 전반적인 기술 자문 및 디자인 노하우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 합작법인은 중장기적으로

국제기준 및 친환경 항목 등에 부합하는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할 방침이다.

LG화학은 “리튬이온배터리 분야에서 오랜 연구개발 성과와 경험을 보유한 LG화학의 배터리가 탑재되는 빈패스트의 전기차는 가격과 성능, 연비 효율 등에서 베트남 시장에 최적화된 상품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LG화학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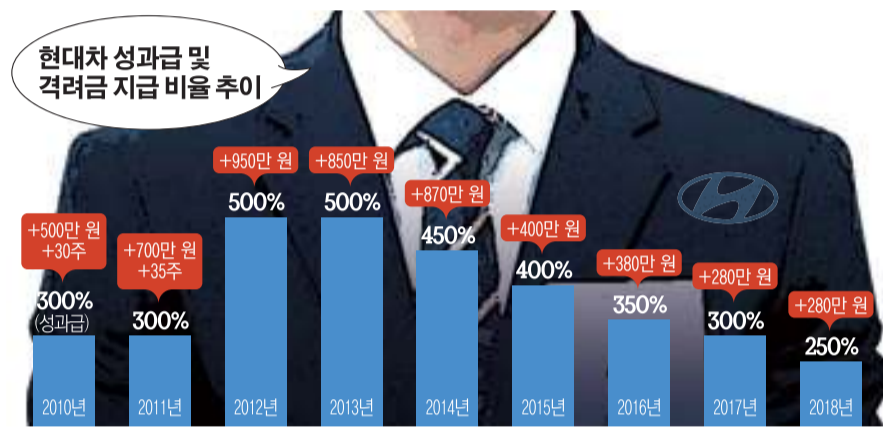
트남은 물론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빈패스트는 베트남 시가총액 1위 그룹인 빈그룹 산하 기업으로 지난해 6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하노이공장을 인수했으며 베트남 하이퐁에 있는 ‘서플라이어 파크’에 올해 2분기 가동을 목표로 자동차 생산라인을 건설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현대차, 대졸신입 연봉 8년 만에 20% ‘뚝’

2012년 5970만원이었지만
수출부진에 성과급 연 50% 줄어
작년 4943만원... 상위 5% 못미쳐
근로자 평균 연봉도 하락 추세



현대자동차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2010년대 초와 비교해 20% 가까이 감소했다. 한때 재계 서열과 시가총액 2위에 이름을 올렸으나 신입사원 연봉은 이제 상위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됐다.

7일 현대차 사업보고서와 한국경제연구원 통계 등에 따르면 이 회사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상위 5%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현대차 전체 근로자는 6만5886명이다. 2011년 5만7068명과 비교해 15.45% 늘었다.

이 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은 5조1017억8000만 원에서 6조4053억2100만 원으로 25.55% 증가했다.

당시 8900만 원이었던 1인당 평균 급여는 2014년 9700만 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를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듬해 9600만 원(2015년)에서 9400만 원(2016년)→9200만 원(2017년)→9200만 원(2018년)으로 내렸다.

같은 기간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나뉘어 더 컸다. 2012년 현대차가 주요 대학 취업설명회를 통해 밝힌 신입사원 연봉은 5970만 원이다. 이후 9년이 흘러 6000만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사정은 달랐다. 신입사원 초봉은 오히려 1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신입사원 연봉에는 △기본급 △성과급 △격려금 등이 포함돼 있다.

2011년 입사한 신입사원은 임단협에 따

라 기본급의 3배에 달하는 △성과급(300%) △격려금(7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여기에 당시 기준 1주당 21만 원을 훌쩍 넘었던 현대차 주식 35주도 별도로 쟁겼다.

노사가 2012년 성과급 500%와 격려금 950만 원에 임합을 마쳤고, 2013년 임단협 때에도 성과급 500%와 격려금 850만 원에 합의했다. 정몽구 회장이 글로벌 800만대 시대와 양적성장을 주문하던 때였다.

그러나 이를 정점으로 성과급과 격려금은 감소세에 전환됐다.

성과급 비율은 매년 50%씩 감소해 지난해 250%로 줄었다. 2013년 대비 비율이 절반 수준이다. 1000만 원에 육박했던 격려금도 1/3수준인 280만 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중국의 판매부진과 내수 산업수요 감소에 따라 전체 영업이익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2013년 기준, 현대차는 매출 87조3076억 원과 영업이익 8조3155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이 97조2516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70.8%나 감소해 2조4222억 원에 머물렀다.

결국 성과급 비율과 격려금 규모가 줄어

들면서 6000만 원을 넘어섰던 현대차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지난해 5000만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잡플래닛 등이 집계한 현대차 대리급 이하 신입사원(대졸) 평균 연봉은 4943만 원으로 나타났다. 통계는 현재 근무 중이거나 퇴사한 직원들이 입력한 최근 데이터의 평균치다.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대차 신입사원의 연봉은 상위 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삼성과 LG, SK 등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은 △5500만~6000만 원(0.8%) △5000만~5500만 원(3.2%) △4500만~5000만 원(9.5%) 등으로 나타났다. 한때 삼성 전자에 버금가던 현대차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지난해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상위 5%에서 밀려난 셈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직원들 근속 연수가 늘어나면서 기본급이 인상됐지만 성과급(비율)과 격려금 규모가 줄어 전체 수령액이 감소한 상태”라며 “간부급 직원의 경우 4~5년 전과 비교해 연간 2000만 원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삼성 ‘듀얼 QHD 게이밍’ 모니터 출시

커브드 광시야각 패널 적용
‘CHG90’ 대비 두 배 더 선명



삼성전자는 게이밍 모니터 최초로 듀얼 QHD(5120 x 1440) 해상도가 적용된 49형 QLED 게이밍 모니터 ‘CRG9’를 8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출고가는 149만 원이다.

‘CRG9’ 모델은 기존의 ‘CHG90’의 더블 풀HD(3840 x 1080) 제품 대비 약 두 배 더 선명하다. 32대 9의 슈퍼 울트라 와이드 화면 비율과 1800R 곡률의 커브드 광시야각 패널이 적용돼 고품질의 콘텐츠를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다.

QLED 기술과 최대 1000니트(nit) 밝기를 적용해 더욱 정교한 색 표현이 가능해졌다. 또 △120Hz 고주사율로 부드럽게 화면을 전환해 이미지 잔상을 최소화하고 △AMD 프리싱크 2(FreeSync 2) 기술을 탑재해 게임 도중 화면의 끊김이나 잘림 현상을 없애주며 △게임에 맞는 색 대비와 색상 톤을 알아서 설정해주는 ‘게임 컬러 모드’ △1인칭 슈팅 게임 시 적정률을 높여주는 ‘가상 표적 기능’ 등을 탑재해 게임에 탁월한 성능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PBP(Picture-by-Picture) 기능을 통해 노트북과 데스크톱처럼 서로 다른 두

대 기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하나의 화면에서 양쪽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멀티 태스킹 작업에 최적화돼 있다.

블루라이트를 줄여주는 ‘아이 세이버 모드’로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도 눈의 피로를 최소화해 준다. 한편 ‘CRG9’ 모니터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인 ‘CES 2019’에서 컴퓨터 주변 기기 부문 ‘최고 혁신상’과 게이밍 부문 ‘혁신상’을 동시에 수상한 바 있으며, 영상전자표준위원회(VESA)로부터 DisplayHDR 1000 표준 인증을 획득해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8년 국내 게이밍 모니터(주사율 100Hz 이상) 시장에서 점유율 39.2%로 1위를 차지했다. 누적 판매 대수는 최근 3년 동안 글로벌 100만 대, 국내 10만 대를 돌파했다. 송영록 기자 syr@

LG ‘V50 씽큐’ 보상 프로그램 확대

LG전자가 5G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부담을 한 번 더 낮췄다.

LG전자는 이달 출시를 앞둔 5G 스마트폰 LG V50 씽큐의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중고 시세 이상의 보상을 제공하는 ‘LG고객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기간은 5월 말까지이고, 보상을 원하는 고객들은 안심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기종은 총 42종이다. LG 스마트폰은 전원만 들어오면 구매 시기, 마모 정도, 기능 이상 여부 등과 상관없이 각 모델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보상을, 타사 제품은 반납하는 제품 상태에 따라 책정되는 보상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제작된 출시된 LG G6를 반납하고 LG V50 씽큐를 구매하면 16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출시된 LG G8 씽큐를 구매한 고객들도 통신사가 제공하는 5G 스마트폰 교체 프로모션을 이용해 LG V50 씽큐를 구매할 때 기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다.

LG V50 씽큐는 웰컴 최신 AP인 스냅드래곤 855와 5G모뎀(X50 5G)을 탑재해 5G 스마트폰으로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한다. 전작 대비 20% 커진 4000mAh 대용량 배터리와 최대 2.7배 커진 방열시스템 ‘쿨링 파이프’를 탑재, 고객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5G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전용 액세서리 LG 듀얼 스크린은 여닫을 수 있는 플립(Flip) 커버 안쪽에 6.2인치 올레드 화면이 있다. LG전자가 2015년 출시한 ‘LG V10’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세컨드 스크린’을 화면 바깥으로 끌어내 멀티태스킹 성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V시리즈의 정체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탈착식이라 필요할 때만 장착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는 동시에 LG 듀얼 스크린으로 출연배우, 줄거리 등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송영록 기자 syr@

“힘들수록 공격적으로”... LGD, R&D 첫 2兆 돌파

글로벌 경쟁 심화에 패널價 하락
작년 매출 12%·영업익 96% 감소
초대형·고해상도 제품 차별화 전략
지난해 세계 최초 타이틀 8개 넘어

LGD디스플레이의 지난해 연구개발(R&D) 비용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실적 악화에다 오히려 R&D 비용을 늘리며, 공격적으로 기술 주도에 나서고 있다.

7일 LG디스플레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의 작년 R&D 비용은 2조641억 원을 기록했다. 2010년 R&D 비용이 1조 원을 돌파한 지 8년 만에 2조 원을 넘어섰다.

LGD디스플레이는 실적 감소에도 R&D

비용은 늘리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4조3366억 원, 92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2.4%, 96.2% 감소한 규모다.

반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은 2016년 5.4%에서 2017년 6.9%, 지난해 8.5%로 증가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16년 R&D 비용으로 1조4232억 원을 지출했고, 2017년에는 1조9117억 원, 2018년에는 2조 원이 넘는 비용을 썼다.

LGD디스플레이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패널 판가 하락세로 실적이 악화한 가운데, 올레드 TV 및 초대형·고해상도 제품으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8K 크리스탈 사운드 OLED, 65인치 커브드 UHD OLED 디스플레이, 전장부품 시장을 겨냥한 초대형 29인치 풀 데시보드 등

을 개발했다. 지난해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단 연구개발 결과물만 8개가 넘는다.

올해도 LG디스플레이는 기술, 생산, 제품부문에 다양한 R&D를 이어간다. 먼저 중국 광저우 8.5세대 OLED 패널 공장을 3분기부터 월 6만 장 수준으로 양산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월 13만 장 수준으로 대형 OLED 생산량을 대폭 늘려, 2018년 290만 대였던 판매량을 올해 40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휘도와 응답속도 등 OLED의 성능을 높이고, 초대형 등 프리미엄 제품 및 크리스탈 사운드 OLED, 롤러블(Rollable), 투명 디스플레이 같은 차별화 제품도 확대한다. 2005년 이후 14년 만에 누적 판매 1억 대를 달성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임원 줄사퇴...금호아시아나 '시계제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한 데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담당 임원 2명도 최근 '감사보고서 사태'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회사를 떠났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산매각과 비수의 노선 정리, 조직개편 등을 통해 경영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업계에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김이배 전략기획본부장(전무)과 김호균 재무담당 상무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감사보고서가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며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사퇴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것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며 "두 사람의 사표 수리는 되지 않은 상태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한창수 사장의 사퇴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박삼구 회장 경영 퇴진 이어 '항공' 재무 담당 임원 2명 사표 '그룹 임원 물갈이' 신호탄 분석도 이원태 부회장 중심 비상경영체제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회사채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수일 내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바뀌면서 상장채권 폐지 사유가 해소되고 매매가 재개됐으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확대됐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지고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지난달 28일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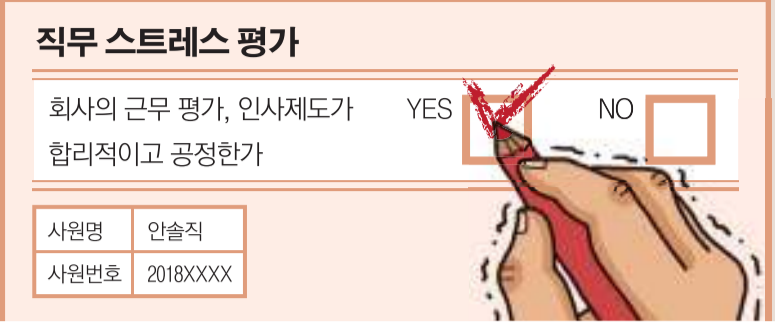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원태 부회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분간 그룹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재무담당 임원의 사퇴가 그룹 전반적인 '임원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채권단

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KDB산업은행이 3월 아시아나항공과 맺은 재무구조개선약정(MOU)을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기간 내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하라는 압박"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또한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진정성과 성의 있는 자구안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거에도 박 회장이 퇴진했다가 복귀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이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차입금의 규모는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계열 사지분 매각'을 통해 급한 불을 끌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유상증자의 경우 최대주인 금호산업의 증자 참여 여력이 부족하고, 영구채 발행의 경우 채권단이 박 회장의 금호고속 지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현실화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LCC 계열사 지분과 금호리조트 지분 등이 매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인사제도 공정한가' 질문에 이름·사번 같이 적어내라니...

기업의 직무 스트레스 평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69조에 따라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이에 해당 직무를 포함하는 업종의 기업들은 직무 스트레스 평가를 통해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 평가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원을 밝힌 상태에서 회사와 관련된 예민한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직원들이 솔직한 마음으로 평가에 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직무 스트레스 평가를 받은 대기업 A사의 직원은 "회사의 근무 평가, 인사제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가" 같은 질문에 어느 누가 자신의 이름과 사원번호를 적고 진솔하게 답변할 수 있겠냐"며 "아무리 회사 담당자가 잘 관리한다고 말하더라도 짚짚해서 속마음 그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반응에 해당 기업 측은 "법과 정부 산하기관의 가이드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A 회사 관계자는 "단순히 통계자료로만 활용한다면 신원을 파악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무 스트레스 결과가

높은 직원들을 추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설문 작성자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며 "아울러 설문 문항 역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가이드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인별로 진행하는 경우 신원을 기재해야 하지만, 부서별이나 회사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무기명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다만 개인별로 진행하는 편이 가장 정확하게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파악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가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인별·부서별·회사 전체 등 진행 범위와 평가 양식을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직무 스트레스 평가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는 사안과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가이드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업은 양식을 나눠준 뒤 사내에서 보건·건강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취합하거나 임직원 교육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 뒤 실시하는 등 방식은 다르지만 직무 스트레스 평가 과정에서 이름, 사번 등 개인의 신원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양식이 표준화돼 있고, 공신력 있는 측정 도구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고용부 "직무 스트레스 평가 개인별로 해야 정확히 파악" 기업 "가이드라인 따랐을 뿐" 직원들 "솔직한 답변 어려워"

현대·기아차, 1분기 美 SUV 점유율 8%

투싼·싼타페·코나 등 판매 호조... 7년 만에 최고치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1분기 미국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에서 8%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1분기 미국 시장에서 15만5082대의 SUV를 판매했다. 합계 점유율은 8%로 2011년 10%를 돌파한 이후 7%대에 머물다가 이번에 다시 8%대를 회복한 것이다.

전체 판매량 중 SUV의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53.8%에 달했다. 2013년 SUV 판매 비중은 30.9%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보였으나 50%를 넘기지 못했다.

특히 현대차는 투싼과 싼타페, 코나 등을 통해 미국 SUV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현대차의 미국 SUV 시장점유율은 3.9%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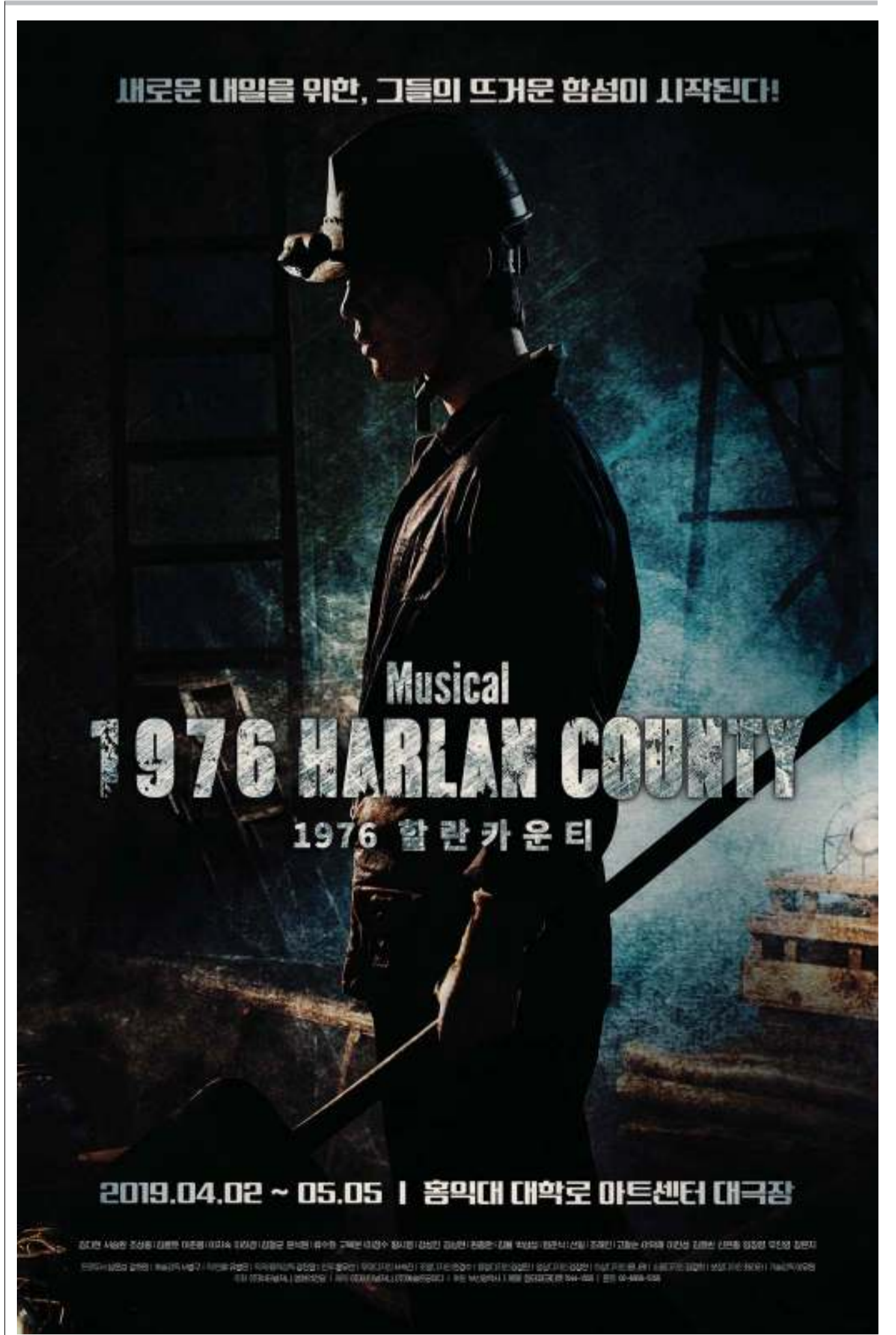
2.6%를 기록한 뒤 서서히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4%에 가까이 다가선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SUV 판매 비중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50.1%를 기록했다. 현대차 SUV 판매 비중은 2017년 36.2%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45.2%를 기록했다.

SUV 모델별로는 투싼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으며, 싼타페 역시 0.5% 늘어났다. 코나는 지난해 출시 이후 누적 6만5000대 이상 판매했다.

기아차는 미국 SUV 시장점유율이 1분기 4.1%로 지난해 연간 점유율(4.0%)보다 높았다. 기아차 텔룰라이드는 출시 2개월 만에 5395대가 판매되며 미국 시장 점유율을 견인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100대만 시범운영하라니... 차라리 한국 떠나겠다”

ICT 규제샌드박스 1호인 ㈜뉴코에드윈드 측이 정부의 ‘희망고문식’ 규제에 결국 베트남으로 생산공장 이전을 검토하기로 했다. <본지 4월 2일자 2면 참조>

장민우 뉴코에드윈드 대표는 7일 “과기부와 행안부, 국토부가 ‘디디박스’ 후면광고를 허용하되 1년간 단 100대만 생산해 시범운영하라고 통보했다”며 “사업성도 없는 규제를 허용해주고, 아니면 말고식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베트남 공장 이전 방침을 밝혔다.

뉴코에드윈드에 따르면 과기부, 행안부, 국토부 등이 기존 방침을 바꾸고, ‘후면광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옥외광고물법을 관리하는 행안부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 측은 최근 과기부를 통해 뉴코에드윈드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뉴코에드윈드 측은 후면광고 허용은 국내외 사례를 감안해 당연히 허가해야 할 사안이라며, ‘디디박스’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서울과 대전, 광주, 전남 지역에 한해 최소 400대는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뉴코에드윈드는 디디박스 생산을 위한 공장 가동에 약 50억 원을 투입해야

장민우 뉴코에드윈드 대표
베트남으로 사업장 이전 검토

“7년 공들인 ‘디디박스’ 광고
최소 400대 돼야 사업성 확보
정부 ‘희망고문식 규제’ 그만”

한다는 판단이다. 과기부 측이 통보한대로 1년간 100대만 시범운영할 경우 광고를 할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이 나타나지 않아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

결국 장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등이 ‘선허용·후규제’ 방침으로 규제 샌드박스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정작 사업을 해야 할 관료(공무원)들은 대통령 위에서서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해외로 ‘규제이민’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과기부, 행안부, 국토부 등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 끝내 디디박스 허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지 않을 경우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해외 현지 공장을 만들어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장민우 뉴코에드윈드 대표가 사업장 베트남 이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코에드윈드

장 대표는 베트남에 현지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현지 출장을 떠날 계획이다.

앞서 뉴코에드윈드는 세계 최초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달통에 ‘LED패널 스마트 광고박스(디디박스)’ 특허를 낸 바 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핵심 지원사업이기도 한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1호 신청 업체로 선정됐지만 심의위의 규제에 반발해 회의장

을 이탈, 심의 보이콧을 했었다.

반면 해외에서 뉴코에드윈드 ‘디디박스’는 1363억 원 이상 가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북미·유럽 등지에서 ‘스타트업 혁신대상’을 잇따라 수상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다.

장 대표가 개발한 디디박스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주문(콜)을 잡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배달통의 상호가 무료로 바뀌는 ‘딜리버리 디지털 스



마트 배달통’이다. 배달시장 외주화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오프라인 홍보에 애를 먹으면서 배달통 ‘왼쪽·오른쪽·뒷면’ 3곳에 LED광고를 심는 시스템이다.

장 대표는 “7년 넘게 디디박스 개발을 위해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밤낮 없이 일했고, 제품개발비만 15억 원 이상 투입했다”며 “1년간 단 100대를 시범사업하려고 세계 최초의 특허 제품을 만든 게 아닌 만큼 끝까지 규제샌드박스위가 반대할 경우 베트남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기자 yes@

불황 직격탄에 출혈 경쟁까지 시멘트업계 ‘굳어버린 실적’

작년 시멘트 업체 다수가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악화에 저가 수주 경쟁까지 겹쳐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업체의 실적이 나빠졌다. 특히 불경기에 출혈경쟁까지 벌이는 형편이라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등 국내 시멘트 업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멘트 부문만 집계했을 때 쌍용양회는 지난해 매출 9958억 원, 영업이익 1669억 원, 당기순이익 1504억 원을 기록하며 업계에서는 가장 좋은 실적을 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2017년에 비해 매출액은 3.62% 줄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31%, 64.40% 감소했다.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세아시멘트는 지난해 3907억 원의 매출을 내며 영업이익은 247억 원, 당기순이익은 73억 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2017년 대비 지난해 매출은 11.08%, 영업이익은 50.62% 떨어지며 실적이 반토막 났다. 당기순이익은 무려 88.14%나 급감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업계 전반의 영업불황이 당기순이익 감소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세아’ 작년 영업익 절반 뚝
‘삼표’ 순익 -132억 적자전환
저가 경쟁에 시멘트값 하락세

작년 한일홀딩스와 인적분할을 시행한 한일시멘트도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512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561억 원, 당기순이익은 537억 원을 기록했다. 한일시멘트는 건설경기 둔화와 SOC 예산 감소가 영향을 줘 실적 상승이 높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성신양회는 지난해 6169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296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당기순이익은 166억 원으로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전년 대비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0.26% 증

가했고, 영업이익은 7.33% 줄었지만 당기순이익은 36.48% 늘었다.

삼표시멘트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5712억 원, 영업이익 -95억 원, 당기순이익 -132억 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삼표 측은 시장 수요 축소에 따른 판매물량 감소 및 경쟁 심화, 선박 부족으로 인한 물동량 차질, 선박 등 설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이 겹쳐 실적 악화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좀처럼 돌고우가 보이지 않는 것이 업계의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형편이 나빠지는 상황에 저가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 간 출혈경쟁 탓에 시멘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1t(톤)당 시멘트 가격은 6만1610 원으로 전년도인 2017년도 6만3993원보다 3.72% 줄었다. 시멘트 가격은 2014년 6만8095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내림세다.

업계 관계자는 “바닷모래 공급 부족과 원재료 상승 등으로 시멘트업체들이 지난해 공급단가 인상을 위한 다각적인 여론전을 폈지만 건설업계의 견제에 공동 대응하는 노력보다 업체 간 저가 수주 경쟁 심화로 실제 가격이 내려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아직 갈 길 먼 ‘5G 세상’

KT, 5G 완전무제한 요금제
‘사용량 제한’ 조항 넣어 논란
갤S10 출시에 불법보조금 기승
“인프라 부족, 제 성능 못내” 지적

5G상용화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리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제한 조항을 끼워 넣는 등 초반부터 갖가지 잡음을 만들고 있다.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아직 인프라 태부족으로 성능을 실감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초의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은 KT가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둔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국내에서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KT 5G 슈퍼플랜’ 요금제 3종을 월 8만~13만 원에 출시했다. 하지만 KT의 공정사용정책 조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최대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 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가 들어있다. 초고화질(UHD)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의 1시간 데이터 소모량은 보통 10~15GB 수준이다. 2시간씩 이틀을 쓰면 데이터 제한에 걸린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런

조항이 관련 6개 조항 중 제일 마지막에 배치돼 있어 고객들이 알기 어려운 수준이다. 마케팅용 폼수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KT는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틀일뿐”이라고 설명했다.

불법보조금 등 혼탁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조짐도 보인다.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가 출시되면서 이동사들의 불법 보조금도 대거 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3사가 공시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최대 43만 원의 불법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게 휴대폰 판매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선점을 위해 과대로는 감수할 정도로 출혈경쟁이 심해지는 조짐”이라고 우려했다.

인프라 부족으로 제 성능을 내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G 휴대폰 실사용자들은 후기를 통해 ‘화면 커진 LTE폰’이라는 불만을 쏟아내는 형편이다. 실제 변제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기지국 송수신 장치 10개 가운데 9개가 대도시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사도에 있는 8만5261개 기지국 장치 중 85.6%인 7만2983개가 서울·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변 의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라며 “서비스 지역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의 피해와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중진공, 9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5일 경기 안산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제9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진공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시설로 올해는 1000명이 입학식을 치렀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

국에 17곳이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이날 입학식에서 특강을 통해 본인의 창업 경험을 공유했다. 이스타항공을 창업하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대기업들의 독과점을 깬 경험을 전달했다.

이 이사장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까지 2400명의 청년창업가를 배출, 1조 8500억 원의 매출 성과와 57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대한민국 청년 기술 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며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가들이 넥스트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LG U+, 5G 체험 고객에 ‘뮤직 어워즈’ 티켓 증정

LG유플러스는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체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입장권, 커피 쿠폰 등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400여 개 매장 체험존에서

열린다. LG유플러스 매장에 마련된 5G 체험존에서 U+프로야구와 골프, 아이돌라이브, U+VR와 AR, 게임 등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15일까지다.

LG 측은 서비스를 체험한 고객 중에 추첨을 통해 이달 2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리는 음악 시상식인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입장권을 제공한다. 매일 선착순 100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교환 쿠폰도 증정한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새 주인 찾는 영등포 역사 롯데·신세계·AK '3파전'

영등포 역사가 새 주인을 찾는다. 롯데 백화점이 사업 연장을 노리는 가운데 신세계 백화점과 AK플라자가 뛰어들며 영등포역사 3파전이 예고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조만간 영등포역사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철도 시설공단 관계자는 "4월 말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사전 자격 심사를 통해 운영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 후 2차 가격 경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1989년 정부로부터 영등포역사 점용 계약을 맺고 1991년부터 영등포역사에서 백화점을 운영해왔다. 올해 12월 말 만기로 롯데의 영등포점 영업은 종료되고,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가 역사를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롯데백화점이 영등포 역사 사용 연장에 손쉽게 성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전대(재임대) 불가 조항과 최대 10년에 불과한 임대 기간 때문이다. 현재 법으로는 점포 내 음식점과 미용실,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재임대가 불가능해 제대로 된 백화점 사업이 어렵다. 또 투자비 회수를 고려해 기존 임대 기간이 짧아 백화점 업계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부족했다.

하지만 임종성 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역사 사용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4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5일에는 본회의 심의역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역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장 20년' 계약... 4월 말 사업자 모집 공고 '터줏대감' 롯데, 재계약 노려...신세계도 TF 구로본점 문닫는 AK플라자, 사업성 검토

백화점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영등포점은 롯데백화점의 매출 상위 4번째에 해당하는 주요 점포다. 여기에 서울시는 '서울플랜2030'에 따라 영등포를 3도심으로 삼고 다양한 재생과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영등포역에는 현재 KTX 기차역과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2023년에는 신안산선도 추가된다. 신길뉴타운과 영등포뉴타운이 개발되며 배후 수요 역시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곳은 신세계백화점과 AK플라자다. 신세계는 당초 관심이 없었지만 법률안이 개정되는 움직임을 보이자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특히 신세계는 1월 롯데에 빼앗긴 인천 터미널점을 설득할 기회기도 하다. 인근 타임스퀘어에서 백화점과 이마트를 운영 중이지만 사업권을 따낼 경우 라이벌 롯데를 견제하는 한편, 트레이더스나 스타필드 등 쇼핑몰로 꾸며 영등포역 일대를 신세계 타운으로 꾸밀 가능성도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자체 인력을 투입해 입찰에 대비 중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영등포역사 입찰 참여에 대해) 개발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며 "영등포점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AK플라자 역시 참여를 시사했다. 8월 AK플라자는 25년의 역사를 뒤로한 채 구로본점의 문을 닫는다. 이에 자급력은 충분하다. 특히 AK는 수원역과 팽택역 등 민자역사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백화점이라는 점도 영등포역사 진출을 뒷받침한다. 관계자는 "법을 개정인의 진척 여부와 입찰 공고를 확인하는 대로 사업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대백화점은 목동점을 보유한 데다 2021년 여의도점 개점을 앞둔 상태라 서울 서부 상권에 더 이상 출점할 이유가 없다. 갤러리아백화점 역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주세법 개정' 논의 앞두고 반격 준비하는 국산 맥주

오비맥주, 출고가 평균 5.3%↑ 연구개발·생산설비에 1兆 투입 하이트진로는 '테라' 안착 총력



주세법 개정을 앞두고 맥주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주류업계는 수제맥주 설비에 공들이는가하면, 신제품을 출시하고, 기습적인 가격인상에 나서는 등 돌파구를 모색하는데 여념이 없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맥주 수입액은 443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주세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수입맥주 열풍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라앉은 분위기다. 1~2월 맥주 수입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4월 안에 50여 년간 유지되던 주세법 개정에 대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출고가격에 세금을 붙이는 증가세 대신,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주류업계도 이를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신호탄을 터뜨린 건 업계 1위 오비맥주다. 2년 5개월 만에 이달부터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제품 공장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다. 일각에서는 오비맥주가 주세법 개정 전 맥주 가격을 인상, 경쟁사 하이트진로 신제품 '테라'의 시장 진입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가격 인상 전 물량을 확보하려는 도매상의 '사재기'로 반사이익을 보려는 속내로 해석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일단 하이트진로가 2010년 이후 9년 만에 신제품 '테

라'를 출시한 상황에서 오비맥주가 이렇듯 공격적으로 나서면 '테라'의 초반 시장 정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테라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기까지 소요되는 3~4개월 동안 카스의 판매를 끌어올린다는 심산"이라고 설명했다.

오비맥주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연구개발과 설비 확충, 영업, 마케팅 등을 위해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재정계획을 수립했다. 신제품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확충에 3000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인천공장에 수제 맥주 생산 설비를 연내 구축하는 등 수제 맥주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세계 개편 이후 프리미엄 맥주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수제맥주에서 수제맥주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업계 2~3위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는 가격 인상 계획 등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신제품 '테라'의 출고가를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책정한 지 고작 한 달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맥주 다품종 전략으로 다양한 맥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올해에는 시장에 신제품 테라를 소개하고 경쟁이 치열한 맥주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영업 마케팅 활동을 최대한 끌어올려 올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롯데주류 역시 2017년 충주에 맥주 제2공장을 완공하고, 같은 해 피츠를 론칭하는 등 당분간 또다른 투자 계획 없이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 개선에 힘쓸 전망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국내산 햇포도 맛보세요”

갤러리아명품관 식품관 고메이494에서는 국내산 햇포도 데라웨어를 올해 처음 선보인다. 데라웨어는 일반 포도보다 당도가 높으며 씨가 없고 크기가 작아 누구나 먹기 편한 것이 특징이다. 갤러리아명품관에서 판매하는 데라웨어는 대전 소재의 농장에서 하우스 가온 방식으로 재배, 일반 노지 재배 포도에 비해 약 3개월 먼저 출하된다. 가격은 100g당 6980원이다.

사진제공 갤러리아백화점

식생활 변화에 경기침체 '접착제' ...외식업계 '휘청'

NY핫도그, 자금난에 법정관리
계절밥상도 지난해 25곳 폐업

외식업계가 위태롭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식생활의 변화에 이은 출혈 경쟁, 경기 침체 등으로 폐점하는 외식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경영난에 시달리다 회생절차를 밟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7일 국내 1위 미국식 핫도그 프랜차이즈 '뉴욕핫도그앤커피(NY핫도그)'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2014년 343개에 달했던 매장 수는 지난해 말 98개로 쪼그라들었다.

'셰프의 국수전'을 운영하는 바인에프씨

역시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연이은 외식브랜드의 회생신청은 국내 외식업계의 현 상황을 대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발표한 지난해 가맹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외식업의 가맹본부, 브랜드, 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평균 사업 기간은 4년 7개월에 불과했다. 외식업계가 몸집 불리는 만큼 경쟁은 심해지고 문 닫는 업체 또한 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개별 외식 업체의 실적은 녹록지 않다. CJ푸드빌의 한식 뷔페 브랜드 '계절밥상'은 지난해 25개 점포를 정리해 현재 17개 점포만 남아 있고, '빽스' 역시 지난

해 21개 점포를 폐점했고 현재 58개 매장만 운영 중이다. 신세계푸드의 '올반'은 지난해 3개 점포의 문을 닫고 현재 9개 점포를 운영 중이고, 이랜드파크의 '애슐리'와 '자연별곡'은 지난해 각각 18개, 3개 점포를 정리했다. 롯데지알에스가 운영하는 TGI 프라이데이스 역시 지난해 2개를 폐점해 현재 2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외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간편식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 배달 시장이 확대되면서 외식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며 "외식을 둘러싼 환경은 나빠지고 있는데 공급은 늘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박미선 기자 only@

CU '홈택배 서비스' 이용 3배 경증

고객 지정 시간·장소에서 픽업
런칭 3개월 만에 213% 급성장



편의점 CU(씨유)가 택배 전문회사 CUpost(씨유포스트)와 함께 올해부터 도입한 '홈택배 서비스' 이용 건수가 서비스 런칭 3개월 만에 3배 이상 신장했다고 7일 밝혔다.

홈택배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편의점을 찾아가 택배를 맡겨야 하는 종전의 방식과 달리, 고객이 직접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배송 기사가 방문, 물품을 픽업한 후 인근 CU에 택배 접수를 대행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 수도권 일부에서 테스트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CU에 따르면 지난해 홈택배 이용 건수는 지난해 12월 대비 무려 3배(212.7%)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이용 건수 역시 도입 초기 대비 약 2.5배나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홈택배는 접수 당일 원하는 시간에 바로 이용 가능하며 1~2일 내 목적지로 배송된다.

CU는 도입 초기 서울, 수도권으로 한정됐던 홈택배 서비스 접수 가능 지역을 이달

부터 6대 광역시로 확대하고 순차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이용료는 동일 지역, 타 지역 구분 없이 최저 4000원(택배비 포함)으로 택배 접수 시 고객이 기입한 물품 무게와 크기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결제는 신용카드, 모바일 후불결제 방식으로 한 번에 가능하다.

조규천 BGF포스트 마케팅팀장은 "홈택배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프리미엄 택배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CU의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택배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CU는 이달 말까지 홈택배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 갤럭시 S10, 갤럭시 버드 등 경품을 증정하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선착순 100명에게 홈택배 무료이용권도 증정하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코스닥 벤처〉

코벤 펀드 출범 1년... 성장 멈추고 우려만 남았다

작년 시장 변동성 커지며 수익률 하락
CB·BW 주식 전환엔 매물 폭탄 우려
올해 평균 수익률 11.5%로 높지만
투자자 차익 실현 나서며 자금 유출

메자닌 채권 발행액 현황
(단위 : 억 원)

	2018년		2019년 1분기	
	CB	BW	CB	BW
전체	4,301.5	8,682	6,711	4,95
코스닥 벤처기업	1,373.50	1,276	3,156	0

※출처 : SK증권

코스닥 벤처펀드(이하 코벤 펀드) 출범 1년을 맞았다. 초반 폭풍 성장세는 멈춘 상태로 급기야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7일 금융투자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공모형 코벤 펀드의 설정액은 6302억 원,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 11.52%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주식형 펀드(9.10%)의 평균 수익률을 앞지르는 수치다. 하지만 수익률 회복세에도 펀드의 자금 유출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한 달 사이에만 437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올 들어서는 657억 원의 자금이 유출됐다.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펀드 투

자가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벤 펀드는 지난해 4월 5일 정부 주도 하에 출범했다. 정부 정책 펀드라는 타이틀에 힘입어 고수익은 물론 3년 이상 펀드 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 기대감을 타고 출범 3개월 만에 공모형 펀드에만 8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900선까지 올랐던 코스닥지수가 600대로 추락하면서 수익률도 부침을 겪어야 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등 시스템의 미흡으로 펀드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코벤 펀드 시장이 다시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출범 이후 신규로 코벤 펀드를 출시한 운용사는 단 1곳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코벤 펀드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코벤 펀드가 부추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 부사채(BW)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매물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벤 펀드는 전체 자산의 15%는 벤처기업 신주에, 35% 이상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체 후 7년 이내인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CB와 BW가 벤처기업의 신주로 인정돼 신주 요건을

채우기 위한 코벤 펀드 운용사들의 수요가 커졌다. 이러한 수요 급증에 맞물려 지난 1년간 발행된 CB 규모는 약 4조 원에 달한다. 특히 총 323건의 전환사채가 발행(SPAC 발행 포함)됐는데, 그중 211건은 표면금리 0%로 발행됐을 정도로 채무자가 '갑'인 시장이 형성됐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CB와 BW 등 메자닌 채권은 기존 주주들로서는 주주 가치 희석요인으로 작용하고, 대규모 전환 청구 발행 시 단계적으로 수급에 부담이 된다"면서 "출시 1년이 지난 지금 메자닌 채권들의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전환청구 개시일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사업 다각화 위한 505억 유증 결정

상장사 재무 분석

드림시큐리티

드림시큐리티가 1일 505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

비교적 양호한 재무상태(2018년 말 기준 부채비율 12.23%, 유보율 622.26%, 현금성 자산 62억 원 등)와 현금흐름(영업활동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에 시장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드림시큐리티 "약 300억 기업인수 자금" = 드림시큐리티는 3년 내 증자 자금 중 304억 원을 투입,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업인수 혹은 지분투자 등 전략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7일 "인수 대상 기업 선정을 위해 내부 사업성 검토 등으로, 사모투자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무적 투자자(FI)와 인수 관련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인수 대상 기업, 금액, 시기, 방법 등 인수개요는 구체적으로 계

드림시큐리티 주요 재무 지표
(단위 : 백만 원, %, 연결기준)

부채비율	2017년	2018년	비교 (업종평균)
부채비율	22.31	12.23	90.23
유동자산	14,181	15,796	
현금 및 현금성자산	4,490	6,275	
단기금융자산	4,359	3,923	
총차입금	1,706	600	-
현금및현금성자산	4,490	6,275	-
유동비율	484.42	618.16	165.59
차입금의존도	7.04	2.22	18.15

3년 내 기업인수·지분투자 계획
생체인증 등 신규 사업도 추진
작년 말 기준 부채비율 12% 양호

약을 확정하는 시점에 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 검토가 여의치 않으면 3년 내 다른 기업을 인수 또는 지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자금은 사육 마련과 함께 신규 사업인 △생체인증 △첨단 암호기술

△블록체인 인증 기술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기술 △사물인터넷 전용 기기 인증 및 암호기 시스템 등의 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자본확충·성장동력 발굴 '긍정적'... 실권주 우려 '부정적' = 유증자금이 유입되면 자본 확충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강화가 기대된다. 현재 재무 상태도 동종 업계 대비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재무적인 측면에선 긍정적이다. 아울러 드림시큐리티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증자 진행 기간 주목할 대목은 최대 주주의 유상증자 참여 여부다. 최대주주는 법진규 대표이사로 48.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법 대표가 25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청약해야 하는 셈이다.

대표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 케이프 투자증권으로, 마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사가 인수키로 계약된 상태. 실권주 인수금액의 15.0%를 추가 수수료로 받으며, 실권주 매입 단가는 일반 청약자들보다 15.0% 낮은 효과를 보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실권주 물량은 조기 처분된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종민 기자 kjm@

알란텀, 완전자본잠식에 존폐 위기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 부자
10년간 1000억 투입했지만
중국 시장 위축 등 변수 발생
작년까지 순손실 규모 1898억

알란텀 실적·재무 추이
(단위 : 억 원)

매출	2008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영업이익	-40	-98	-80	-52
순이익	-43	-277	-149	-94
자본금	315	817	817	817
결손금	-43	-946	-1,093	-1,184
자본총계	279	-135	-283	-373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과 아들 최내현(최 제임스 성) 알란텀 대표가 10년여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신사업이 존폐 기로에 섰다. 1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원하는 등 사업 회생에 총력을 다했지만 실적 개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알란텀은 지난해 별도기준 14억 원의 매출과 52억 원의 영업손실, 94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보다 20%가 줄었고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지속됐다.

알란텀은 2008년 8월 영풍그룹이 디젤 차량용 매연저감 장치 개발과 제조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 회사 설립에는 고려아연(47.62%)과 코리아니켈(47.62%)이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최내현(0.95%), 장세준·세한(각 0.48%) 등 오너가 지분은 2% 미만이다. 그럼에도 최 명예회장의 장남 최내현 대표가 처음으로 진두지휘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알란텀은 재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알란텀은 설립 이래 단 한 번의 흑자도 내지 못하며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의 적자가 났다. 설립 이듬해 115억 원으로 매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감소하면서 작년에는 14억 원에 그쳤다. 최대 수요처였던 중국 자동차 시장이 2010년대 들어 위축된 데다 주력 제품의 기술 승인이 난항을 겪는 등 변수가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게다가 메탈폼의 매출 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 증설, 해외시장 진출 등을 추진한 것도 자금 부담을 키웠다.

이따른 적자로 작년까지 알란텀의 누적 영업손실만 1342억 원에 달한다. 순손실로는 1898억 원 규모다. 또 이러한 영업·순손실은 자본금 감소로 이어졌고 최근 3년 동안은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최창영·최내현 부자(父子)는 알란텀의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상증자와 단기 대여금, 출자전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를 살리고자 했다. 2008-2009년에는 고려아연, 코리아니켈, 케이지엔지니어링 등 그룹 내 계열사들이 유증에 참여했고, 곧 이어 증자에 참여해 수년간 500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수혈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최 명예회장 부자의 지원이 2015년 이후 끊기면서, 고려아연과 코리아니켈 등이 보유한 알란텀 지분을 손상 처리하면서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려아연과 코리아니켈은 이미 수년 전 알란텀 지분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10종목 중 8개 하락

삼성전기·삼성SDI 2개만 올라
주가 등락률 평균 -7.20%
外人·기관, 평균 수익률은 상승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10종목

종목명	금액(백만 원)	현재가(원)
KB금융	288,595	45,300
삼성전기	266,571	112,500
삼성SDI	261,356	218,000
삼성바이오로직스	234,997	344,000
SK텔레콤	211,671	246,500
신라전	192,003	64,800
삼성엔지니어링	182,528	16,950
S-Oil	156,130	92,800
아남티	151,270	16,250
롯데쇼핑	147,563	179,500

올해 국내증시가 반등세를 보였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사들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연초 이후 현재까지 주가가 오른 종목은 삼성전기(4.50%)와 삼성SDI(1.90%) 2개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제외하고 아남티(-22.47%), 삼성바이오로직스(-14.57%), 신라전(-12.40%), 롯데쇼핑(-12.10%), KB금융(-8.92%), 삼성엔지니어링(-7.74%), SK텔레콤(-7.71%) 등 나머지 8개 종목

은 모두 크게 하락했다.

이들 10개 종목의 주가 등락률은 평균 -7.2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수익률은 6.49%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 순매도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주가는 15.23% 상승했고, LG이노텍과 호

텔신라는 각각 40.38%와 30.51% 올랐다. 또 SK하이닉스(22.44%), LG전자(19.59%), 삼성중공업(14.09%), 삼성에스디에스(14.08%) 등 순매도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주가가 급등했다. 이들의 평균 상승률은 18.24%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2.35%를 기록했다. 삼성전기(15.23%)와 SK하이닉스(22.44%), 삼성SDI(1.90%), LG화학(8.61%) 등 9개 종목이 올랐다. 한국전력(-12.19%)만이 하락했다.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도 8.17%를 기록했다. 10개 종목 중 현대차(4.82%), 현대모비스(12.70%), LG전자(19.59%), 호텔신라(30.51%) 등 8개가 상승했다. 반면 KB금융(-8.92%)과 SK텔레콤(-7.71%) 등 2개만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bithumb 빙썬
www.bithumb.com

빙썬 지수 (2019년 4월 7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347,600	29,500 (9.3%▲)	모네로	78,800	1,750 (2.3%▲)
리플	406	10 (2.5%▲)	비트코인골드	23,250	40 (0.2%▲)
라이트코인	105,700	9,300 (9.6%▲)	이더리움 클래식	7,700	1,245 (19.3%▲)
대시	153,400	2,400 (1.6%▲)	퀀텀	4,012	215 (5.7%▲)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주택 임대사업 등록 감소... 다주택자 증여 역대 최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액 줄고 세 부담 커져

지난달 강동구 신규 임대 등록 86건...용산구도 33건 그쳐

지난해 서울 주택 증여는 66%나 늘어 '빚수 증여' 의혹도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자 등록자 수가 크게 줄고있다. 반면 다주택자들의 증여는 급증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111명으로 전달의 6543명 대비 2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신규 등록 기준으로 2017년 11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저 수

준이다.

이는 지난해 9·13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대폭 줄고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증가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는 등 혜택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임대등록 건수도 설 연휴가 끼여 있던 2월과 비슷

하거나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감소세를 보이는 곳도 적지 않았다.

강동구의 지난달 신규 임대등록 건수는 86건으로 지난해 1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마포구와 용산구도 지난달 25일 현재 신규 등록 건수가 각각 55건, 33건으로 지난해 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당초 전문가들은 올해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으로 일부 다주택자들이 이달 30일 공시가격 확정 공시 전까지 임대등록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드러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분위기

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건축물 증여 건수는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3만52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택의 증여는 전국적으로 11만1863건이 신고돼 2017년(8만9312건)보다 25.3% 늘었다.

특히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2만4765건으로, 2017년(1만4860건) 대비 66.7% 증가했다.

부동산 증여는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2월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만82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7581건)에 비해서도 늘었다.

이처럼 증여가 급증하면서 미성년자 증여 등 변칙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 증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임대무기기간 내 '무단 양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담에 임대사업장 현황 등 각종 신고 의무도 많아서인지 최근엔 임대등록 문의보다는 기존 등록자들이 취소 가능 여부를 알아보려는 문의가 더 많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넓은 골목길에 카페 유치, 활력 불어넣는다

서울시, 종로·성북구 등 13곳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서울시는 용산·성북구 등 13곳에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사업지별로 3년 동안 총 10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하며 시·구의 분야별 사업과 연계해 재원을 추가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골목길을 따라 1km 내의 현장 밀착형 소규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 단위 재생사업이다. 폭 4m 이내 생활 골목길이나 10~12m 이내 골목상권, 보행중심 골목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범지로 선정된 용산·성북구에 이어 자치구 공모를 통해 11곳을 새롭게 선정·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종로구(운니동, 익선동 일대)와 중구(장충동2가) 등 11곳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연내 공사에 착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바닥이 파손되고 조명이 없어 어둡고 위험한 골목길 주변 생활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폐



서울시 한 쪽방촌 골목길. 이투데이DB

가를 카페나 식당, 마당 등으로 조성해 골목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서대문구의 경우 골목관리소를 운영하고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후 주택이 많고 골목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 간 마찰이 잦다는 특성이 반영됐다.

폭 1~8m, 길이 900m의 가파른 구릉지에 있는 금천구 말미마음은 노후 주택과 빈집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 정주환경 조성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저층 주거지의 3분의 1 이상은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 주택이며 골목길 주거 형태 역시 대부분 사업 범주에 해당한다. 424개 동 중 4m 미만 보행자 도로는 286개 동으로 전체 면적의 42%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골목길 재건축이 어려운 4m 미만 보행자 도로가 있는 지역, 재개발 해체 지역을 재생해 슬럼화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는 8일 골목길 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시민 정책대화'를 열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골목길 재생의 방향을 고민한다.

박원순 시장은 "골목길은 시민의 삶터이자 공동체가 소통하는 열린 공간,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 자원이지만 열악하고 낙후된 곳이 많아 골목길 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시민 정책대화를 통해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금주의 분양캘린더

4월 둘째 주 전국에 1만98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오피스텔)', 경기 구리시 수택동 '한양수자인구리역',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레이크파크

지오' 등이 분양을 시작한다. 행복주택 물량도 대거 나온다. 내주 분양 물량의 절반인 5000여 가구가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당첨자 발표는 22곳에서 진행된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호반써밋송도', 경기 하남시 학암동 '힐스테이트북위례' 등이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주 계약이 진행되는 단지는 15곳으로

강원 원주시 명륜동·무실동 '원주더샵센터랄파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오피스텔)', 인천 연수구 송도동 '호반써밋송도(오피스텔)' 등이다.

건본주택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퍼리지오더프레티움', 경기 화성시 화성우방 아이유셀메가시티, 대구 동구 방촌동 '방촌역세영리첼', 북구 읍내동 '강북태왕아너스터퍼스트' 등 5개 단지가 개관한다.

날짜	구분	시	구사동	읍면동	아파트명	4/10 (수)	4/11 (목)	4/12 (금)		
4/8 (월)	접수	서울	강동구	강일동	강일2준주거1(행복주택) (~4/10)	발표	발표	발표		
			광진구	화양동	발리브인테라스 *					
			동작구	사당동	학수복합(행복주택) (~4/10)					
		중랑구	신내동	신내글로벌(행복주택) (~4/10)						
		경기	구리시	수택동	유타트윈밸리스 *					
		파주시	와동동	파주온정자구디에이비 *						
	계약	경남	김해시	삼계동	김해삼계두곡한라비발디센터시티 2순위					
			창남	예산군	삼곡읍	창남도청이전도시PM6(영구임대) (~4/12)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한울에이치밸리B동 (~4/10)				
		4/9 (화)	접수	대전	유성구	북동동	대전아이파크시티1단지(민간임대)	발표	발표	발표
							대전아이파크시티2단지(민간임대)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			
4/10 (수)	접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	발표	발표	발표		
			고양시	일산동	e편한세상일산아반스카이 1순위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더샵퍼스트시티(A1) 1순위					
		파주시	법원읍	파주법원(행복주택) (~4/18)						
		경기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Ca1(행복주택) (~4/18)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Ca2(행복주택) (~4/18)						
	4/11 (목)	접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	발표	발표	발표	
						용두동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
						용두동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 *
			은평구	구산동	은평서해그랑블					
			중랑구	양원지구	신내역강남퀵터리움센터랄파크(C2)					
			인천	연수구	송도동	호반써밋송도(M2) *				
4/12 (금)	오른	경기	화성시	기안동	화성우방아이유셀메가시티(1단지)	발표	발표	발표		
					화성우방아이유셀메가시티(2단지)					
					화성우방아이유셀메가시티(3단지)					
		대구	북구	읍내동	강북태왕아너스터퍼스트					
					방촌동				방촌역세영리첼	
					상동				상동역세영리첼	

(주1) * = 오피스텔, * =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른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고척 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동

입찰 현장설명회 10곳 참여 983가구... 사업비 1876억

구로구 고척제4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수주전이 본격화했다.

고척제4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5일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 입찰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시공사 입찰 공고에 따른 것이다.

이날 설명회 현장에는 10개 건설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건설사는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한신공영, 동부건설, 우미건설, 금강주택, 한양 등이다.

고척제4구역 사업의 공사 규모는 지하 4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 동, 983가구가 계획됐다. 조합원 및 일반분양 물량은

9개 동 835가구, 임대 물량은 1개 동 148가구다. 구로구 고척동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에 유일하게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진행한 사업지인 만큼 건설업계 이목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 가구수를 보면 일반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59㎡ 525가구(A타입 438가구, B타입 87가구) △84㎡ 270가구(A타입 246가구, B타입 24가구) △114㎡ 40가구 등이다. 임대 물량은 전용면적 39㎡ 58가구, 49㎡ 90가구로 구성됐다. 여기에 4295.3㎡ 규모의 어린이공원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입찰 자격은 입찰보증금 100억 원(50억 원 이상은 현금, 잔여금액은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을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다. 공사 예정가격은 1876억5142만 원이다. 입찰마감일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다. 서지희 기자 jhsseo@



5일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 한양

서울 첫 무순위청약... 지역 랜드마크로

주목! 이곳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시공사 보증 중도금 대출 지원 분양가 3.3㎡ 당 2570만 원

"주택시장 침체라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이사를 목적으로 알아보는 거라 당첨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일단 넣긴 해야죠."

5일 개관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견본주택에는 내 집 마련, 갈아타기, 투자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1일대에 있던 동부청과시장을 재개발해 올라서는 주상복합 단지다. 규모는 최고 59층(최고 높이 192m), 4개 동, 1152가구로 지어진다. 이 중 전용면적 84~162㎡ 112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위치는 지하철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강릉선, ITX-청춘 등이 정차하는 청량리역에서 5분 거리에 있다. 또한 GTX C노선(예타통과) 이용 시 강

남 삼성역까지 1개 정거장이며, GTX B노선(추진 예정) 등 추가적인 교통 호재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지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2570만 원이다. 전용 84㎡는 최저 8억1800만 원부터 최고 10억8200만 원으로 구성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9억 원 이하 가구는 1777가구뿐이다.

이에 시공사인 한양은 무주택자 및 1주택자 실수요자를 위해 9억 원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시공사 보증을 통한 중도금 대출을 앞선하기로 했다.

이 단지는 특히 서울에서 최초로 '사전 무순위청약'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하기 전에 10~11일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무순위청약을 받기로 한 것이다. 무순위청약은 정당계약 완료 후 잔여가구 발생 시 사전 청약접수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다. 청약 요건이 수도권에 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든 누구든지 접수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사업지 인근인 동대문구 용두동 9-4에 위치한다. 이진철 기자 camus16@

“분만중 실명한 태아에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벚꽃길 걸어요 화창한 날씨를 보인 7일 서울 여의도 윤중로 앞대를 연분홍빛으로 물들인 벚꽃길을 시민들이 따라 걸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뉴스1

대법 “태아, 피보험자로 명시한
보험계약 개별약정 유효” 판결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분만 중 사고로 인해 영구장애를 입은 태아에게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가입자와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현대해상은 소송액의 12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A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8월 출산 예정일을 5개월여 앞두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하이라이프 갯넌굿어린이C보험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A 씨는 2012년 1월 지방의 한 산부인과에서 흡입 분만으로 출산하던 중 태아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고, 아기는 2년 후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현대해상은 2012~2015년까지 보험계약에 포함된 특약에 따라 A 씨에게 1000만 원의 실손의료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A 씨가 보통약관, 상해후유장애 특별약관 등을 이유로 1억22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애초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의 실손의료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

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사람의 출생 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분만 중 태아의 경우에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보험기간은 출생 시부터 개시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태아의 장애 상태는 A 씨가 동의한 의료행위 때문인 만큼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응했다.

그러나 1, 2심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현대해상이 태아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상 2011년 8월 25일부터 합당한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이어 “보호자들이 태아 분만을 위한 의료적 처치에 동의했다고 해서 영구장애에 이르게 되는 결과까지는 아니다”면서 “현대해상은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태아의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양측이 이와 달리 태아를 피보험자로 개별 약정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업자와 고객이 다르게 합의한 사항을 우선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장효진 기자 js62@

서울시 ‘미세먼지 컨트롤타워’ 출범

박원순 서울시장 직접 지휘
정책 자문단·연구소 설립도

서울시가 미세먼지 해결을 시정 최고 현안 과제로 삼고 총력적인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를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싱크탱크인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미세먼지 연구소’를 설립한다.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는 5개 추진반으로 구성되며 서울시를 비롯해 25개 자치구, 산하기관 등도 포함된다.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은 미세먼지

정책의 싱크탱크로 해당 분야 전문가 21명이 참여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제안 및 연구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문단은 특히 최근 서울시가 환경부에 제안한 미세먼지 시준제와 관련, 정부와 협력해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동 시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연구소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미세먼

지 관련 연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련 연구 체계를 일원화하고 미세먼지 연구 로드맵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원순 시장은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분석과 전문적인 기술 검증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도출될 것”이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8일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진희 기자 jh6945@

폭언·성희롱 ‘甲질’ 간부 법원 “해임 처분은 정당”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은 근로복지공단 중간 관리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

판사)는 전 근로복지공단 부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제심판청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대부분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해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코웨이 정수기 ‘니켈 검출’ 소송, 소비자 패소 법원 “니켈 도금 벗겨짐 단정 못해…배상 책임 없다”

정수기 렌탈 업체 코웨이의 얼음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되자 이를 사용한 소비자들 소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엄모 씨 등 소비자 899명과 권모 씨 등 181명이 각

각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엄 씨 등은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 박리 현상으로 니켈이 함유된 물을 마시게 됐고, 코웨이가 2015년 7~8월 니켈 함유물이 검출됐음에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1인당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정수기 100대를 분해한 결과 22대에서 증발기의 니켈 도금손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분해한 정수기 100대는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정수기가 아니라 손상 등으로 폐기 예정인 것들”이라며 “원고들이 사용한 정수기도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른 비율인 22%만큼 니켈 도금 박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y Life
2019. 04. VOL. 1
이제부터는
내편에서
웃으며
모든 내일로
만들다
살을 부르는 치유의
가수 우순실
노인대학생
테크리포트
성명하게 차분
안그리운 봄날의 한 상

아침이 있는 삶
Healthy Habits

COVERSTORY 아침이 있는 삶

PART1. 아침을 사색하다 - 이래서 아침이 좋습니디
PART2. To Wake Up - 당신의 아침은 안녕하나요?
PART3. 아침을 여는 사람들 - 새벽을 기르고 달려서 하루를 열다
PART4. 공복을 깨우다 - 시니어의 아침, 내 식습관대로 먹는 게 최고야
PART5. 아침을 즐긴다 - 아침을 깨우는 기분 좋은 음악과 소리
PART6. 굿모닝 모일 - 책과 함께 아침을 여는 '독서모일 양자녀비'
PART7. 미국과 일본 전문가가 권하는 시니어를 위한 아침활동 Best 6
PART8. 중년기자들의 아침맞이 -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월예이징 무릎 인공관절 수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때때로 손상으로 인한 무릎관절 통증은 시니어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지만 쉽게 치료되지 않아 심각하다. 손상된 연골을 되살리기 위해 유전자 치료제부터 줄기세포 기술까지 온갖 첨단 생명공학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속 시원한 치료법은 아직 없는 상태. 결국 아직까지는 인공관절을 이용한 치료가 현실적인 답안이다. 하지만 인공관절 치료에 대해서도 여러 오해와 역효과가 난무한다. 정형외과 전문의 서원병원 김준식(金俊植·63) 부장을 통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알아보자.

귀촌

절 것 없이, 따질 것 없이
과감하게 귀촌하라

“어려 나 어느새 이렇게 나이 들었어? 이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 흘러진 세월을 아쉬워한다. 그러고서도 정작 무한정한 시간을 용케된 것처럼 하루하루를 허비한다. 이 일면을 보시라. 시간 나누어 온티 이후를 신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시간을 아루지게 쓴다. 귀촌이 그걸 가능케 했다. 심심하게 땀소니를 지는 시간에 아루졌음이, 환절 만족할 만한 시골살이를 누리고 있으니.

신라비가 만난 사랑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성숙한 어른이 된다
허지현
건국대학교 교수

호쾌한
금빛 미지가
유도 스타 허황주의
고백(Go Back)

"인생은 여차피 위로운 법,
자신을 사랑하라"
살을 부르는
치유의 가수 우순실

타박타박 도보여행 하동 악양면, 차창 머금은 봄바람 쐬러 갈까요?

4월의 찬란한 신록을 만끽하기 위해 하동으로 간다. 강변에 들녘을 벗어 날을 상상하며 아름드리 봄나무 가로수 길을 달린다. 오른쪽 차창 밖으로 은빛 삼진강과 푸른 보리밭이 봄볕에 반짝인다. 삼진강가 신바람에는 아상차림이 연도빛 생기를 뿜는다.

자격증 두드림 첫 번째 상담 대상자는 바로 나!

자격증에 관심을 두는 층이 높아졌다. 젊은이들이 취업에 위한 스펙 쌓기의 도구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니어 역시 재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고 있다. 2019년 등록원 자격증 수는 3만2000여 개. 관심 있는 자격증 정보를 선별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고민인 중장년을 위해 자격증을 분야별로 나눠 알아보려 한다. 이번 호에는 심리·상담사 분야를 소개한다.

시니어 발상
올해부터 사활을식
상큼하게 차린
싱그러운 봄날의 한 상

부치지 못한 편지
편서각 시간
하느님 곁에 계시
정생 형제

자체 타이틀·신장르 개척... 게임 명가 '부활 날갯짓'



⑨ 네오위즈



2004년 스페셜포스

2007년 아바

2007년 슬러거

스페셜포스·피온... FPS·스포츠게임 대중화 기여

국내 대표 게임사 성장

1997년 설립된 네오위즈는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원클릭'을 시작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세이클럽'을 선보였다. 게임 속 캐릭터인 '아바타'를 처음으로 유료화 모델로 성공시키는 등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서비스해왔다.

2003년부터 게임포털 '피망'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당시 비주류 게임이던 FPS와 스포츠장르를 대중화시키며 국내 대표 게임업체로 성장했다. 이후 네오위즈는 2007년 4월 네오위즈홀딩스의 기업분할을 통해 게임 전문 기업(구 네오위즈게임즈)으로 탄생한다.

온라인 시장에서 RPG와 캐주얼 장르가 대세이던 2004년 네오위즈는 '스페셜포스'의 퍼블리싱을 시작했다. 스페셜포스는 동시접속자 수 13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

'스페셜포스' 동시접속 13만명 EA와 '피파온라인' 공동 개발 '피온2' 재계약 불발 등 아픔도

게임으로 자리 잡았다. 마니아 장르로 인식되던 FPS를 일반 게이머들에게 친숙하게 만들었으며, 이후 '서든어택' 등 후발주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출시 12주년을 맞은 온라인 게임 '아바'는 당시 언리얼 엔진3를 도입해 사실적인 표현과 각종 그래픽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FPS게임으로 2007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다른 FPS장르 게임인 '크로스파이어'는 국내의 퍼블리싱을 맡아 해외에서 큰 성공을 거뒀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FPS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2006년에는 글로벌 게임기업인 EA와 콘솔 타이틀을 온라인 게임으로 공동개발을 진행했다. 첫 작품인 '피파온라인'은 공개 서비스 시작 두 달이 채 안 돼 동시접속자 수 15만 명을 돌파했으며 2006년 월드컵 특수를 맞아 최단기간 동시접속자 수 18만 명을 돌파하는 등 당시 스포츠게임 중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피파온라인 2' 역시 동시접속자 수 22만 명을 기록하는 등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스포츠 장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온라인 대표 야구게임 '슬러거'도 흥행 성공을 거두며 네오위즈에 스포츠게임의 명가라는 타이틀을 선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 네오위즈의 주요 매출원이었던 피파온라인2의 서비스권이 넥슨으로 이전되고, 크로스파이어와 계약변경을 거치며 내리막길이 시작됐다. 여기에 웹보드 게임의 규제 강화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2017년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2016년 블레스

2013년 피망포커(모바일)

퍼블리싱 중심서 자체 개발·모바일 사업으로

사업구조 전환 승부수

네오위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 IP 강화에 나섰다. 2016년 2월 온라인 MMOPRG '블레스' 출시를 시작으로 퍼블리싱에 집중했던 사업구조를 자체 개발 타이틀과 모바일 중심 사업으로 전환했다. 블레스 이후 '브라운더스트', '탭소닉' 시리즈,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등 자체 제작 게임들을 선보이며 개발사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네오위즈 대표 모바일 게임인 브라운더스트는 빠른 속도감과 깊이 있는 전략이 특징인 턴제 전략 RPG다. 현재 국내외에서 서비스되며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과 동남아, 대만, 홍콩, 마카오,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권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브라운더스트는 대만에서 최고 매출 순위 2위를 기록하는 등 선전한 결과 지난해 해외에서 연 매출 400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에서는 시즌2 업데이트 등을 통해 다시 월 활성 이용

대표 모바일 게임 '브라운더스트' 북미·유럽 등 전세계 권역 서비스 'DJ맥스' '피망포커' 꾸준한 사랑

자 수를 경신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블레스는 지난해 10월 23일 스팀에 정식 출시하며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5월 얼리엑세스 버전으로 스팀에 출시한 블레스는 출시 초기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며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정식 출시 시기에 부분 유료화 방식으로 전환해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레벨 확장 및 콘텐츠 업데이트를 빠르게 진행하는 등 글로벌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디제이맥스' 시리즈는 PSP, PS Vita, 아케이드 등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해 국내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리듬 게임이다. 10년이 넘게 이어져온 시리즈답게 축적된 개발력과 기술적 노하우, 방대한 음원, 디렉팅 능력이 큰 장점으로 꼽히며

강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2017년 7월 출시된 '디제이맥스 리스펙트'는 이후 신규 DLC(다운로드 콘텐츠)를 꾸준히 발매하며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색다른 즐거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게임과 콜라보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전통 강자로 꼽히는 '피망포커', '피망뉴 맞고' 등 보드게임 역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모바일 시장에서도 선두게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맞추어 이용자들이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재미와 편의성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소셜카지노 게임을 통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네오위즈는 2018년에 자체 IP 매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등 과거 퍼블리싱 중심의 사업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데 성공했다. 또 해외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해 2018년 해외매출이 10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 브라운더스트

2017년 피망뉴맞고

2018년 탭소닉TOP

콘솔게임 등 영토 확장... 인디 개발사와 상생 강화

글로벌 시장 성과 확대

올해의 네오위즈는 기존 게임들의 글로벌 성과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플랫폼에서 신작들을 선보이며 성장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모바일 게임 출시를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 개척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24일 국내 서비스 2주년을 맞는 브라운더스트는 북미, 유럽 시장 이용자들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탄탄한 게임성과 해외 시장 서비스 경험을 발판 삼아 글로벌 흥행 게임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블레스 언리쉬드' 올 콘솔 출시 언리얼엔진4 사용 고품질 그래픽 '피규어즈 워' 등 신작 출격 준비

또 올해에는 콘솔 게임 '블레스 언리쉬드'를 선보인다. 블레스 언리쉬드는 네오위즈블레스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MMORPG로, 방대한 대서사 구조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복잡한 음모가 존재하는 월드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특히 언리얼 엔진4를 사용해 콘솔 게임 중 가장 뛰어난 그래픽을 구현, 게이머들에게 더 깊은 수

준의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독창적인 게임을 개발하는 인디게임사들을 네오위즈에 합류시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도 진행 중이다. 그중 '파이드파이퍼스' 팀이 스팀을 통해 선보이는 PC게임 '아미 앤 스트레티지'와 '플레이그라운드' 팀이 개발 중인 모바일 RPG 게임 '피규어즈 워'도 2019년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 글로벌 이용자들의 취향에 맞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하이퍼 캐주얼 장르부터 개성 강한 이용자들의 스타일을 적극 반영한 모바일 게임까지 다채롭게 출시해 새로운 성공 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광고심의필 : 2018-1448-004400



동성 여행갈때, 정로환!

느닷없는 배탈, 설사로 즐거운 여행을 망칠 수는 없죠?
잊지마세요~ 여행갈때 동성 정로환 챙기기

배탈, 설사엔 동성제약 정로환이 좋습니다

동성제약 정로환은 위장의 원활한 활동을 도와주는 생약성분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만든 제제로 설사, 식체, 묽은 변, 토사에 효능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로환 당의정은 특유의 냄새를 제거한 정제 형태로 복용이 간편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국민 정장제, 동성 정로환
이제 지긋지긋한 배탈, 설사 고민에서 벗어나십시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동성정로환

동성정로환(120환, 500환) / 동성정로환당의정(48정)
소비자 상담전화 : 080-001-0921



“코트 함께 뛰며 땀 흠뻑...인생 선배로 멘토링도”

보육원 찾아 '농구 봉사' 하는 유한양행 '윌로우' 동아리

두 달에 한 번 저녁시간 체육관서 운동하고 치킨·햄버거 파티 횟수 더해가며 스스로없이 대화 “이젠 아이들이 더 기다리죠”

“아이들이 농구하는 날을 기다렸다고 애 기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윌로우는 유한양행의 대표 스포츠동아 리 중 한 곳이다. 2009년 창단된 윌로우는 농구를 좋아하는 직원들이 한 달에 2회씩 모여 친목을 다지는 모임으로 출발했다.

성로원 아이들을 만나게 된 것은 운동과 봉사를 함께할 방법을 고민하면서부터였다. 2017년 8월부터 유한양행 본사가 있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보육원 성로원을 찾아 에너지 넘치는 청소년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있다.

성로원은 영아부터 고3 학생까지 6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아 교사 들도 지도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한다. 청소년기에는 운동 등을 통해 에너지를 발 산하는 것이 좋지만, 성로원 아이들은 하 교 후 저녁 시간 외출 등이 쉽지 않아 운동 시간을 갖기 어려웠다. 윌로우의 농구 멘 토링 봉사는 이런 성로원에 큰 활력이 됐 다.



유한양행 농구 동아리 윌로우 회원들이 지난해 연말 서울 노량진 성로원에 기부 물품을 전달한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윌로우와 아이들의 만남은 두 달에 한 번 목요일 저녁에 진행된다. 매번 10여 명의 아이가 함께하는데 이제는 여자아이들까지 합류해 농구를 배운다. 처음에는 농구 에 흥미가 없던 아이들도 이제는 경기 규칙 과 테크닉을 익히며 매력에 푹 빠졌다.

직원들은 퇴근 후 성로원에서 아이들을 직접 신림동 실내체육관까지 차로 데려간다. 농구장에 도착하면 몸을 풀고 편을 나 뉘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간다. 윌로우 회 원들 모두 농구 기술이라면 아이들에게 뒤 지지 않지만, 체력은 아이들이 훨씬 좋아



유한양행 농구 동아리 윌로우 회원들이 성로원 아이들과 함께 농구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기를 즐기게 된다. 한바탕 땀을 흘리고 나서 먹는 치킨과 햄 버거는 어느 때보다 꿀맛이다.

특히 윌로우 회원들은 특기 나눔은 물론 아이들의 멘토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 다. 아이들은 선생님에게도 말 못 할 고 민과 진로 이야기를 봉사자들에게 털어놓 으면서 어느새 형이나 삼촌처럼 스스로없이 어울리게 됐다.

농구 멘토링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김준 환 경영기획팀 부장은 “회원 모두 농구라 는 스포츠에 대해 알려주고 함께 운동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형이나 삼촌, 또는 인생 선배로서 좋은 조언을 많 이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며 “농구가 좁은 코트 위에서 하는 운동이라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기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 고 즐겁게 운동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 하며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윌로우 회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 동을 통해 아이들과 좀더 많은 시간을 함 께 보내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겠다 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꾸준히 고민하고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euna@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선임

금융결제원은 5일 사원총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되는 이흥모 원장 후임에 김학수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의 임기는 7일부터 3년간이다.



김 신임 원장은 1965년생으로 1988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4 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의사총괄 과장,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등을 역임 했다. 2010년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서비스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쳤다. 2017년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금융 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조달청 차장에 백명기 기획조정관

정부는 5일 조달청 차장에 백명기 기획조정관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신임 백 차장은 1993년 조달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26년간 기획조정관, 구매사업국장, 전자 조달국장, 인천지방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대전 충남고, 고려대 무역 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6회로 공 직이 입문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캠코 부사장에 권남주 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5일 주주총 회를 열고 새 부사장에 권남주 현 캠코 상 임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권 부사장은 1998 년 캠코에 입사해 채권인수부장, 서울지역 본부장, 서민금융지원부장, 인재경영부장 등을 지냈다. 작년부터 상임이사를 맡았 다. 연합뉴스

씨티銀 발데라바노 소비자그룹장

한국씨티은행은 신 임 소비자금융그룹장 에 발렌틴 발데라바노 부행장을 선임한다고 6일 밝혔다.



발렌틴 발데라바노 신임 소비자금융그룹 장은 2003년 씨티 글로벌 소비자 금융 그 룹에 입사한 후 북미, 유럽, 아시아에서 여 러 중책을 맡았다. 박선현 기자 sunhyun@



SH공사, 미세먼지 저감효과 높은 느티나무·주목 등 3000그루 심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5일 식 목일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탁월한 나무를 심는 식목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사진>

SH공사를 비롯한 15개 기업, 2개 대학 임직원 300여 명으로 구성된 ‘CSR 어벤 저스’는 이날 마포구 공덕삼성아파트를 비롯 해 휘경초, 미성초, 서울숲, 독섬한강공 원, 여의도 셋강생태공원 등 서울시 전역 9곳에서 식목행사를 열었다. ‘CSR 어벤저 스’는 이날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수 종으로 알려진 느티나무, 주목, 산철쭉 등 나무 3000그루를 심었다.

이와 함께 기부금 1억 원을 모금해 서울 시 생활권 녹지를 보존하고 쾌적한 도시환 경을 만드는 비영리 재단법인 ‘서울그린트 러스트’에 기부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롯데월드타워 2917계단 오른 수직마라톤 대회

‘2019 스카이 런’ 개최...김지은 선수 여자 엘리트 부문 우승

롯데월드타워가 6일 ‘롯데월드타워 국 제 수직 마라톤 대회, 2019 롯데월드타워 인터내셔널 스카이 런’을 개최했다. ‘스카 이 런’은 매년 뉴욕, 런던, 시드니, 홍콩 등 11개 도시에서 개최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로 2019년에 열리는 총 11개 공식 대회 중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첫 번째로 열렸다.

롯데월드타워는 국제 수직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단체인 ISF 산하 VWC가 공식 인증한 세계 최다 계단 2917개를 오르 는 ‘스카이런(SKY RUN)’ 대회장이다.

올해 스카이런 남자 엘리트 부문은 폴란 드의 피오프르 로보진스키(사진 오른쪽 세 번째) 선수가 15분 37초 76의 기록으 로 남자 부문, 대한민국의 김지은(네 번 째) 선수가 19분 5초 22의 기록으로 여자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김지은 선수는 한 국 선수로는 최초로 2018년 VWC리그 순 위권자(2등)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번 2019 스카이런에서 국제 수직 마라톤대회 한국인 최초 우승자가 됐다.

이번 대회에는 송파구청과 초록우산어 린이재단에서 25명이 자선릴레이를 진행



했으며, 롯데물산에서 매년 후원하고 있는 송파구 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족들 26명이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전 체 대회 참가비 중 대회운영비를 제외한 전액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스포 츠 어린이 인재 육성에 지원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홈플러스·한국P&G ‘유소년 풋살 페스티벌’ 공동 개최

홈플러스와 한국P&G는 어린이들의 꿈 과 건강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2019 플레이컵 유소년 풋살 페 스티벌’을 공동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풋살 페스티벌은 6월 8일까지 두 달간 홈플러스 일산점을 시작으로 부산가 야점, 동대전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등 5개 점포 HM 풋살파크에서 순차적으

로 진행되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 유 소년 축구클럽 120개 팀, 총 1200여 명의 선수가 대거 참가한다.

6일 홈플러스 일산점 HM 풋살파크에서 열린 개막 행사에는 임일순(사진 왼쪽) 홈 플러스 사장과 발라카 니야지 한국피엔지 대표가 함께 시축을 하며 협력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이운상 △기획담당관 박지홍 △지역정책과장 백현식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오성익 △물류정책과장 이성훈 △자동차 정책과장 윤진환 △항공정책과장 김기대 △철도정책과장 김현정 △철도운영과장 전형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지원정책과장 박재순 △용산공원조성추진기 획단 공원정책과장 신보미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장관실 비서실장 정도현 △해양개발과장 유은원 △유동정책과장 황준성 △어촌양식정책과 장 서정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 사안전과장 나승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 정재훈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제조업감 시과장 선중규 △대통령비서실 과전 황원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 황인균

◆하이투자증권 ◇부서장 신규 보임 △ 픽스드 인컴팀장 서민식

◆한국경제신문 △기획조정실장 권영철 △제작국 부국장대우 제작부장 한홍희 △ 독자서비스국 지방독자부 부국장대우 대구지사장 신민홍 △독자서비스국 부국장 대우 수도권독자1부장 이상렬 △광고국 부국장대우 광고총괄부장 겸 미디어총괄 부장 전우형 △환경이카데미원 부국장대 우 부원장 최규술 △편집국 편집부 부장대 우 디자인팀장 추덕영 △편집국 국제부 부 장대우 박수진 △제작국 운전부 부장대우 김기택 △독자서비스국 수도권독자1부 부

장대우 권광욱 △독자서비스국 부장대우 디지털마케팅팀장 박영일 △편집국 지식 사회부 부장대우 오경목

◆연합뉴스 △정보사업국장 김성용 △ 편집국 경제에디터 임상수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주종국 고흥규 △콘텐츠평가실 콘텐츠평가위원 이명조 △OANA(아태뉴 스통신사기구) 사무국장 내정 이동민 △편 집국 전국·사회에디터 안수훈 △인전취재 본부장 권영석 △대전·충남취재본부장 정 찬욱 △정치부장 노효동 △IT의료과학부 장 이주영 △국제뉴스1부장 황재훈 △경기 북부취재본부장 김인철 △대구·경북취재본 부 취재본부장 류성무 △전북취재본부 취재본부장 홍인철 △관리부장 박정석 △영문뉴스부장 심선아 △영문경제뉴스부 장 박상수 △영문북한뉴스부장 장재순

부음

▲오세원 씨 별세, 유병학(자영업)·병 길(자영업)·병림·병문(보험개발원 인력 관리팀 수석부장) 씨 모친상, 김옥생·조미 영(세지음교회 목사) 씨 시모상, 김행구 (전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씨 장모상 = 7일, 충북 영동군 영동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043-743-4499

▲박윤권 씨 별세, 박영신(한국경제신 문 건설부동산 전문기자)·석신(은혜종합 공사 대표)·신호(세무법인 한림 대표)·은 자·경자·은숙씨 부친상, 김화천·유재국·권 병욱 씨 장인상 = 7일, 이대서울병원 장례 식장, 발인 9일 오전 10시, 02-6986-4440

▲백옥용 씨 별세, 정병국(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씨 장모상 = 6일, 통영전문장례 식장 301호실, 발인 8일 오전 11시 30분, 055-645-1233

▲윤동수(고려대 기업경영연구소 창립 위원) 씨 별세, 윤성용(전 CJ홈쇼핑 방송 사업부장)·정현·숙현 씨 부친상, 김정 씨 시부상, 김준호 씨 장인상 = 6일, 삼성서울 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오전 11 시, 02-3410-6902

▲장기태 씨 별세, 장영수(YSJ 스타홀 딩스 대표이사)·경수(서울시 건설기술심 의위원회 심의위원)·양수(캘럭시B 재팬 아메리카 Inc. 대표) 씨 부친상, 예치수 (신한회계법인 대표) 씨 장인상 = 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8일 오전 11시 30분, 02-3010-2239

임병학 칼럼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

美 SEC의 ICO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은?

<증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 공개>

SEC에 의한 ICO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최근 국내외로 블록체인 기술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내에서는 대기업은 물론 정부도 적극적인데 블록체인 기술 검증 및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당국은 ICO에 부정적이며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블록체인 전문기업들의 해외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암호화폐의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다. 지난 1월 만우절 장난이 원인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20% 이상 급등한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500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시적 해프닝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사실, 비트코인 가격 급등보다도 더 주목할 일이 지난주 두 가지 있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는 것과, 같은 날 SEC가 ICO(암호화폐 공개)를 통해 판매한 토큰에 대해 처음으로 '비규제 조치 의견서'를 발행한 것이다.

먼저 SEC가 발표한 ICO 가이드라인에서는 디지털 자산(토큰 또는 암호화폐)이 증권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기본적 분석 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SEC는 토큰의 증권성은 돈의 투자, 공동의 사업에 투자, 투자이익의 기대, 그리고 제3자의 노력에 대한 의존 등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ICO 과정에서 투자이익의 기대와 제3자의 노력에 대한

의존 등 두 가지 항목에 대해 구체적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ICO 발행에 있어 법률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암호화폐 가격 급락과 신뢰도 하락으로 ICO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ICO는 여전히 대세이다. 통계 업체인 ICO벤처 발표에 의하면 2018년 ICO를 통한 총 모집 금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프로젝트 건수는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ICO 규모가 급감한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이더리움 가격 급락으로 기업당 평균 조달액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3분기 대비 프로젝트 수와 유치 성공률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또한 코인스케줄(CoinSchedule)에 의하면 2019년 1월 기준 ICO를 통해 약 4억 달러의 자금이 모집됐고 63개의 ICO가 진행 중인데 이러한 상황은 2017년 초에 비해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STO(증권형 암호화폐 공개), IEO(암호화폐 거래소 공개) 등 ICO를 대체할 만한 자금모집 방법이 최근 각광을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ICO가 주요 자금모집 방법인 것이다. 이

변 SEC의 ICO 가이드라인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미뤄왔던 ICO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SEC의 비규제 조치 의견서 발행도 ICO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SEC는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의 항공 서비스업체인 토큰제트가 ICO를 통해 발행한 TKJ토큰에 대해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고 특정 조건하에서 사용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행하였다. TKJ토큰은 단순 전세기 운송료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1달러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SEC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일종의 비규제 조치 지침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TKJ토큰과 유사한 성격의 암호화폐를 고려하는 프로젝트들의 ICO 증가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SEC 움직임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이 있다. 바로 이러한 조치들이 SEC 독자적 결과물이 아닌 암호화폐 발행 업체들과 적극적인 논의 끝에 나왔다는 점이다. 토큰제트의 비규제 조치 의견서는 작년 초안 제출 이후 SEC 담당자와 50회가량 통화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SEC 담당

자는 공개적으로 다른 기업에도 직접 SEC와 논의하고 승인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다. 블록체인 전문기업이 벤처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국내와는 사뭇 다른 규제당국의 입장이다.

SEC에 의한 ICO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최근 국내외로 블록체인 기술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JP모건 체이스는 암호화폐 발행을 예고하였고, 유럽연합은 지난주 IBM, 리플(Ripple), 아이오타(IOTA) 등 100여 개 기업과 단체를 포함한 블록체인 협의체인 이나트바(INATBA)를 출범하였다. 가장 모범적 블록체인 도입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대기업은 물론 정부도 적극적인데 블록체인 기술 검증 및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당국은 ICO에 부정적이며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블록체인 전문기업들의 해외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 SEC의 ICO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만큼 국내에서도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더 이상의 우수기업 및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할 것이다.



공병호의 독서산책

· 고야마 노보루 '시장의 말공부'

“잘나가는 회사 사장은 말투가 다르다”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럴 때 600개 이상 기업의 경영 지도를 해 온 고야마 노보루(小山昇)의 '시장의 말공부'를 읽어보면 어떨까. 우리보다 먼저 극심한 경기 불황을 겪었던 일본 기업들의 흥망 비밀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권하는 이유는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 저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필자는 "불황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 사장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은 자신의 입에서 가능한 한 부정적 이야기나 남탓, 환경을 탓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해 왔다. 저자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저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천 명의 사장을 만나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내가 느낀 점은 잘나가는 회사의 사장은 말투가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잘나가는 회사의 사장들이 하는 말은 따로 있다."

△돈을 부르는 사장의 말 공부 △불황에도 잘나가는 회사의 언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조직의 소통법 △일 못하는 신입 사원도 핵심 인재로 키우는 비결 △돈 잘 버는 사장은 숫자로 말한다. 이런 주제를 관통하는 질문을 요약하면, "성공하는 사장은 어떤 말을 하는가"이다.

첫째, "모두 사장님 내 탓입니다." 저자의 회사 경영의 대원칙은 "클레임이 발생하면 사장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이다. 클레임을 발생시킨 직원을 채용한 사람도 사장이고, 그 자리에 직원을 배치한 사람도 사장이고, 그런 상품을 취급하도록 한 사람도 사장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영계획을 발표할 때는 반드시 사장의 결의를 문자로 직원들에게 분명히 전달한다. 사원의 급여를 높여 주기 위해 회사는 불황 속에서도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저자는 항상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표현

으로 자신에게도 부담을 주고 직원들도 부담을 함께 지도록 한다.

셋째, 5년 후 미래를 염두에 두고 역산하면서 경영해야 한다. 눈앞의 일에만 압도되어 살다 보면 많은 것을 놓치고 만다. 5년 후를 염두에 둔 경영계획서의 놀라운 효과는 오늘 해야 하는 일을 뚜렷하게 구체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넷째, 중요한 문장을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직원들과 함께 아침 스테디를 6000회 이상 실시해 오고 있는데 교재는 저자가 집필한 '일 잘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회사의 경영계획서 두 가지뿐이다. 저자의 믿음은 많은 것을 배우는 것보다는 적은 텍스트를 활용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해 배우는 편이 사람을 키우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른 평가를 내릴 것이다. 다만 "어떤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담당하기 위해서는 반복해 가르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

은 없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다섯째, 사장의 성적표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다. 한 해 동안의 실적을 정리한 것과 결산일 기준 회사의 재산 상황을 정리한 두 가지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삼사분기 결산서로 회사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섯째, 업계의 비상식을 받아들여야 성장할 수 있다. 동종 업계 대신 다른 업종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그곳에서 교훈을 얻고 좋은 사례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모방할 수 있어야 배울 수 있고 부러워할 수 있어야 이길 수 있다.

끝으로 숫자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좋은 예감이 들수록 반드시 구체적인 숫자로 검증해야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숫자로 이루어진 소통은 직원들의 사고를 명료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오늘은 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불황 탈출법이다. 공병호연구소장

이투데이, 말투데이

☆ 우장춘(禹長春) 명언

"길가의 민들레는 밟혀도 꽃을 피운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우리 농업을 자립 단계로 키운 비운의 원에 육종 학자. 명성 황후 시해사건에 적극 가담한 그의 아버지는 일본으로 도망쳤으나 피살됐다. 그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조국에 뼈를 묻겠다"며 일본인 부인과 자녀들을 남겨둔 채 귀국했다. 그는 제주 감귤, 강원도 감자는 물론 배추와 무, 우리 토질에 맞는 개량된 쌀과 쫄면, 과일 등 20여 품종을 개량해 보급했다. 오늘이 그의 생일. 1898-1959.

☆ 고사성어 / 명철보신(明哲保身)

총명하여 도리를 좇아 사물을 처리하고, 몸을 온전히 보전한다는 뜻. 출전은 시경(詩經). 중산보(仲山甫)가 주왕(周王)의 명을 받고 제(齊)나라로 성을 쌓으러 가는 것을 환송하는 시에 나온다. "속속한 임금의 명령을 중산보가 그대로 행하고 이 나라의 좋고 나쁨을 중산보가 밝히네. 밝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여 그 몸을 보전하며 아침저녁으로 게으르지 않고 임금만을 섬기네." [肅肅王命 仲山甫將之 邦國若否 仲山甫明之 既明且哲 以保其身 夙夜匪懈 以事一人]

☆ 시사상식/나비효과(butterfly effect)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한 번 퍼덕인 것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이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어, 미국을 강타하는 토네이도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예에 빚든 표현이다. '작은 사건 하나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는 뜻으로, 지구 한쪽의 자연 현상이 언뜻 보면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 먼 곳의 자연과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 유머 / 알코올 중독자

진찰받으러 온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손을 부들부들 떨자 의사가 "심하시네요. 술을 많이 드시나 봐요"라고 했다.

환자의 대답. "꼭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쏟아 버리죠."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3일 23시 야밤에 이동통신 3사가 각각 1호 가입자를 대상으로 5G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당초 공식 상용화 일정인 5일보다 이틀이나 앞당긴 것이다.

세계 최초 5G 타이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3사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 가능했다. 치열한 첩보전 끝에 미국보다 2시간 빠르게 상용화에 성공했다. 그동안 과점 시장의 특성상 국내 통신사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진흙탕 싸움을 일삼곤 했다. 해마다 천문학적인 마케팅비를 쏟아부으면서 출혈 경쟁을 펼쳤고, 불법 보조금과 변칙 영업으로 정부에 과징금 철폐를 맞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5G 세계 최초 타

기자수첩



김범근 중기IT부/nova@

민관 합동 첩보작전이 일군 '세계 최초 5G'

이들을 거머쥐기 위해 과기부를 필두로 이동통신 3사가 핫라인을 구축하고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했다. 3일 오후 5시 청와대에서 정부와 이동통신 3사 간담회가 열렸다. 8일로 예정된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념식 및 융합 시연 행사' 준비 때문이었다.

회의 도중 미국 버라이즌이 앞서 예고한 11일이 아닌 4일 1시(한국시간 기준)로 앞당겨 5G 상용화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회의장엔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3시간 느려 4일로 앞당겼는지 확인하려면 4일이 돼야 알 수 있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staff information: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대표전화, 팩스, 광고문의, 구독·배달, 구독료

국민은 유능한 정부를 원한다

문재인 정부를 '선의로 무장한 실험정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적절한 비유인 것 같다. 선의로 추진하는 정책마다 설익고 미덥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장관 인사부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해체 결정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게 한둘이 아니다. 정치의 본질인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는 거녕 다수 국민이 정부의 국정운영 행태를 걱정한다.

당장 인사만 해도 그렇다. '7대 장관 배제기준'을 정한 것은 청와대였다.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등의 기준을 스스로 마련한 것은 '인사파동'을 겪은 과거 정부보다는 인사를 잘하겠다는 선의에서였을 것이다. 결과는 전 정권과 닮은꼴이었다.

야당이 과도한 공세를 퍼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기준에 미흡한 후보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임기 초 대통령령의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함량 미달 후보자들을 밀어붙였다. 인사 때마다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정국 경색'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이번 인사도 처음부터 시끄러웠다. 논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예전같지 않다는 점이다. 41%(갤럽)까지 떨어졌다.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다.

결국 후보자 두 명이 낙마했다. 청와대가 자초한 결과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정권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비상식 그 자체였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데스크칼럼

이재창

국장대우 정치경제부장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주택자는 집 한 채를 남기고 파는 게 좋을 것"이라고 '협박성 경고'까지 한 정부다. 집 세 채를 보유한 인사를 기용하려던 발상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적어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도덕적 흠결이 없는 인사를 찾아야 했다.

두 사람 낙마는 인사 검증 실패를 의미한다. 책임론은 필연적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사과논쟁 "뭣가 문제냐"는 투다. 선의를 앞세운 이중잣대가 아니라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도 출발은 선의에서였다.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다.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 소득하위 20%와 상위 20%의 격차가 사상 최대다. 저소득층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을 보존해주는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또한 대세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도 야근을 시키거나 지방 가라고 한다면 포기한다는 젊은이들까지 있다고 한다. 주 52시간은 워라밸의 필수 조건이다.

방향은 맞지만 치밀한 사전 준비가 없었던 게 화근이었다. 부작용 등 정책효과에 대한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생략돼서

다. 정권의 선의에 반대여론은 무시됐다. 결과는 참담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빗나갔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17%나 줄었다. 정부는 결국 국민에게 사과했다. 깊은 고민 없이 선의만 앞세워 정책을 추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준 상징적 사례다.

탈원전 정책과 4대강 정비도 마찬가지다. 무작정 밀어붙일 일 아니다. 탈원전 근거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내세운 정부가 우리 원전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해외 세일즈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속도조절론이 나왔다. 향후 전기 수급과 재정은 물론 국민 부담인 전기료 인상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대강 보 철거도 마찬가지다. 보의 효용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보 해체에 여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졸속 결정을 해선 안 되는 이유다.

불신하는 관료들의 경험을 사지 않아도 되지만 시민단체 인사들의 말만 듣고 정책을 밀어붙여선 곤란하다. 제2의 최저임금 사태를 막으려면 최소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가려봐야 한다. 정책 실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정부는 성과로 말한다. 선의가 정책 실패를 가려줄 수 없다.

국민은 '아마추어 실험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편향된 이념정부는 더더욱 아니다. 국민은 유능한 정부를 원한다. 제대로 된 정책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정부가 바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정부다.

leejc@

시설

성장전망 추락하고 디플레 우려까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다. 생산과 소비, 투자, 수출이 급격히 가라앉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제기구,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성장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올해 한국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작년 12월 내뱉던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9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 성장률과 정책권고 등이 담길 예정인데, 기존 전망치 2.6%에서 더 떨어뜨릴 것이 확실하다. IMF는 이미 "한국 경제가 대내외 역풍을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이나 IB 등은 더 비관적이다. 무디스는 종전 2.3%에서 2.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5%에서 2.4%로 낮췄다. 스탠더드 차타드, 소시에테 제네랄, 노무라 등도 2.4%였다. 그보다 훨씬 낮은 1%대나 2.0% 안팎을 전망한 곳도 적지 않다.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2.6~2.7% 성장은 달성이 어려운 상태다.

미중무역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 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하고, 수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수출이 4개월째 감소세다. 작년 12월에 전년 동기 대비 1.7% 줄어든 뒤 올해 1월 -6.2%, 2월 -11.1%, 3월 -8.2%로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경제의 3대 지표인 생산·소비·투자 또한 '트리

플' 마이너스다. 2월 산업생산이 전 달보다 1.9%, 소비 0.5%, 설비투자는 10.4% 줄었다. 특히 경기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사상 최장 기간 동반 하락세다. 국제 연구기관인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경기진단을 통해 그동안의 '둔화'에서 '부진'으로 우려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경제가 무너지는 신호가 완연한데, 어느 곳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비교에서 한국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0.5% 상승하는 데 그쳐 36개 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낮았다. 디플레는 물가 하락과 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소비·투자 위축을 가져와 경기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어느 때보다 선제적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들어갔다. 미세먼지발(發) 추경이지만,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는 것이 절실하다. 불황의 고리를 끊고 디플레를 막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동원돼야 한다. 경제가 역풍을 만난 상황에서는 정책패도를 바꿔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이 급선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실물경제가 계속 가라앉고 앞으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불안까지 커지면, 최악의 복합불황으로 걷잡기 어려운 사태가 올 수 있다.

승영록의 이슈노트

산업부 차장



25년간 구호만 외친 '비메모리 육성'

인력 양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오늘의 경제난국도 결국 비메모리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에서 시작됐다고 본다며 타개책도 이런 관점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했다.

1999년에도 비슷한 상황은 이어졌다. 당시 과학기술부는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10년까지 3위권에 진입시킨다는 목표 아래 이 분야의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과감한 설비투자로 선두 일본을 맹추격하면서 반도체 호황의 단맛을 즐기고 있었던 그 당시 벌써 메모리와 비메모리 불균형 문제가 거론된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비메모리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25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1990년대 말부터 2015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사업도 여러 번 시행했다. 특정 산업 분야를 키우기 위해 정부가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례도 드물다.

하지만 지금껏 변한 건 없다. 최근 정부는 다시 비메모리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던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탓이다. 실제로 최근 메모리 반도체 부진 속에서 2월 수출이 3년 전 수준으로 둔화했다. 급기야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 6조2000억 원으로 10분기 만에 최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반토막 이상 급감한 수치다.

25년간 그랬듯이, 정부의 이번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노력 역시 결실 없이 끝나면 안 된다. 과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부터 철저히 연구하는 게 먼저다.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비메모리 분야에서 집중 육성할 분야를 골라내고, 전문 인력 및 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비메모리 사업 육성 전략에 순가라만 얹어서는 안 된다.

syr@



용수철(龍鬚鐵), spring, 봄

침대의 매트리스 안에는 스프링이나 스펀지 따위가 들어 있다. 폭신한 작용을 위해서이다. 지금은 스프링이라는 말이 일반화되었지만, 예전에는 이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탄력이 있는 나선형으로 된 쇠줄"을 용수철이라고 하였다. 용수철은 '龍鬚鐵'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용', '수', '철'이라고 훈독한다. 글자대로 풀이하자면 '용의 수염과 같은 철'이다.

용을 실지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상상 속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상상으로 그린 그림 속의 용은 대개 낙타의 얼굴에 사슴의 뿔, 귀신의 눈, 뱀의 몸통, 사자의 머리카락, 물고기의 비늘, 매의 발, 소의 귀 등을 합체해 놓은 모양이라고 한다. 그리고 입가에는 긴 수염이 나 있는데, 이 긴 수염이 바로 나선형으로 꼬여 있으며 강한 탄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용의 수염'이라는 뜻을 취하여 탄력이 있는 나선형 쇠줄을 용수철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용수철이 스프링이라는 말로 대

체된 것은 외국어를 선호하는 우리 국민들의 언어습관이 크게 작용했겠지만, 합성수지 공업이 발달하면서 용수철의 재료가 철만이 아니라 각종 합성수지도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철제 제품이 아닌데 '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영어 스프링(Spring)에는 용수철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봄'이라는 뜻도 있다. 'Spring'이라는 단어가 봄이라는 뜻을 먼저 갖게 되었는지 아니면 용수철이라는 뜻을 먼저 갖게 되었는지는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봄과 용수철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봄은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탄력을 가진 계절이기 때문이다. 땅이 기운을 내뿜으면서 사랑에서 풀, 꽃, 나무들이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생명력을 보이는 계절이 바로 봄이다. 우리 모두 봄의 생명력 속으로 들어가 보자! 미세먼지가 없던 시절의 그 맑고 풋풋했던 봄이 너무 그리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봄처럼 새롭고 건강한 라이프가 시작된다。



건강한 신혼집을 위한 LG전자 라이프스타일 제안전

2019년 3월 01일(금) - 4월 30일(화)

- 행사1_이제는 필수! 필수 건강관리가전 특별 제안
건강관리가전 동시 구매 시 모바일 상품권 추가 증정
- 행사2_전문가의 케어! 케어솔루션 특별 행사
6대 제품군 동시 케어솔루션 받을 시 추가 캐시백 증정
- 행사3_우리 집에 딱 맞는 결혼·이사 가전 제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및 신제품 구매 시 특별 혜택
- 행사4_살면서 완성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제안
혼수 구입 후 6개월 내 추가 구매 시 특별 혜택



※ 본 행사는 행사 참여 모델에 한하며 상세한 혜택은 판매 매장별 유통별로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해주세요